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능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24, 33)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21호 2013년 2월 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맘몬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 카리스마, 물질만능주의 빠진 미국사회 현실고발과 교회 대응책 소개

미국사회는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바로 물질,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로 돼 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수단이자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비극은 여기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물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 어찌 비극이 생기기 않을 수 있겠는가. 물질은 다만 존재할 따름이다.

물질(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이 모든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되고 돈이 만능이 된 채 인간의 꼭대기에 앉아 무소불위 무소불능의 전능을 휘두르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다.

술제니친이 하바드에서 행한 연설은 얼마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인들이 물질주의에 빠져들었는지 잘 말해준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이 갈등을 숨기며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영적 발전을 막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로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다 보니 항상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하는 경향은 왜, 언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인가? 카리스마(Charisma) 지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교회공동체까지도 신학적 타협을 통해 크리스천들까지 하나님대신 맘몬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How America Became Entangled by Materialism).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번영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촌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으로 한층 높은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생산보다는 소비에 급급하다. 그러다보니 가치들을 만들려는 목적도 없고, 선한 목적과 가치들을 사회에 환원시키려는 마음대신 브랜드와 비싸고 좋은 것들을 구입하려고만 한다. 따라서 세상에 따라 살게 되고 안정과 위안을 신앙보다 위에 둔다. 그러나 공공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의 안락과 만족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 사회 구조 자체가 바로 미국인들을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신용한도나 신용카드 발급은 대니얼 벨이 지적했듯이 "기독교 윤리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까지 먹고 싶거나 사고 싶어도 참아내며 사는 삶의 자세를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와 변화라는 명목으로 항상 새로운 브랜드나 업데이트된 물건을 장만하기에 급급하다.

실제로 첨단 기능을 가진 휴대폰도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조금 보완된 신상품이 나오면 다시 구입하며,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 것 같은 데도 새 차만 보면 사고 싶어 안달이 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미국인들에게 "편의, 안정, 속도 그리고 풍요"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어느새 즉석



하나님대신 맘몬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현대 교회의 현실은 회개해야 마땅하다.

에서 해결되는 만족감에 빠져 이제 무엇이 성취해나가는 과정도 의미도 목적도 없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죽음까지도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덕목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가치들을 지켜나가기보다는 항상 변화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가치가 됐다. 어떤 주제나 가치에 대한 영속성을 과거에는 지켜왔는데, 지금은 "정체성"이라고 부르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한다고 속삭인다.

그러다보니 인간이 중심 되는 문화가 대세이다. 커뮤니티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고

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 결국 공동체도 없고 공공의 선을 위한 가치보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사고의 중심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사조가 더욱 더, 더 많은 것들을 구하게 만들고 있다.

세상이 이처럼 물질과 개인주의에 함몰되다보니 교회까지도 물질주의에 혼합돼 버렸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믿는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성공을 이루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보니 알맹이는 빠진 겉, 문화적 크리스천, 명목적 크리스천이 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크리스천들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사 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 음악회

본지가 주최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포함하는 이번 세미나 후원을 위해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13년 2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 출연진

- Violin\_이슬아
- Cello\_윤지현
- Flute\_윤소영
- Soprano\_강혜영, 최지혜
- 퀸즈장로교회 권사합창단
- 글로리아선교중창단

가격: \$20.00  
티켓문의: 718.886.4040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혼돈 속 이란의 불...민주화 전진 기대



3면 2월 13일부터 사순절 시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5)



9면 투고 칼럼 강승호 목사(필라 순복음중앙교회)



13면 간증 최예림 전도사

# “평신도를 깨운다”

## 국제 20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주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강명욱 전도사  
일시 2013년 4월 15일(월) - 2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단 55세 이하에 한함)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정원 160명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비 \$390 (숙식 및 교재 포함)  
등록마감 2013년 3월 15일  
(인원 제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제 13기 제자훈련 체현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자훈련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 Workshop입니다.

강사 김명호 목사, 양승언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3년 4월 22일(월) - 4월 25일(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  
등록 마감 2013년 3월 15일



### 시론

##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교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며, 주님의 몸이라는 한마디에 그 중요성이 다 담겨있다. 각기 다른 이름이 있으나,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교회인 것이니, 서로 돕고 서로 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동역은 지역교회끼리만이 아니다.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들도 한 뭉치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지역교회에 결여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돕거나,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교회를 일깨우고, 현대사회에 전방위적인 하나님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교회사에 크게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부지기수로 늘어난 기관 단체들을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신앙적배경과 설립취지도 알 수 없고, 지역교회와 관계도 불투명하며, 때로는 교회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교회와 기관단체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몇 가지 제시해본다.

첫째, 각 기관이나 단체들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상식이다. 존재목적이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인지, 신앙고백은 무엇이며 어느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대표를 비롯하여 관련인물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물론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서로도 밝혀야 한다. 하는 사역이 정당하고 자신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간혹 사역의 특성상 비밀로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로 할 것이 따로 있고 밝혀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 감추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모호한 소수의 기관단체 때문에 대다수의 건강한 기관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둘째, 주객이 전도되는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주체가 되며, 지역교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은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표현에 성도들이 익숙해진다면 자칫 교회보다 기관단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각종 기관과 단체를 세웠다. 모든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관과 단체들은 교회의 연결선상에서 사역한다. 즉 손이 짧은 지역교회들의 긴 손이 되어주는 것이다. 교회들도 기관이나 단체들을 외면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동역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기관과 단체와 협력할 수는 없다지만, 교회가 외면하면 기관과 단체가 어느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셋째,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 혹은 훈련할 때에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허락이나 추천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평신도가 등록할 경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거나 담임목사의 동시등록 혹은 추천에 의하여 부교역자가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지역교회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성숙한 배려라 생각한다. 지역교회의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다 알아서 아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마음 같은 이런 배려를 통해 기관단체가 지역교회들과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미성숙한 성도들의 영적교만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며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단과 정체불명의 기관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 및 포섭활동을 하기도 한다. 주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며,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저가는 교회가 순결을 지키도록 어느 때보다 서로 도와주어야 할 때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의 훈련과정은 이들의 신분위장에 도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기관과 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수료했다고 마음 놓고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노력하고 있는 소중한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생기는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들이 분명하게 동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혼돈 속 아랍의 봄... 민주화 전진 기대

## 뉴스위크, 2막 시작 중동민주화 현재 상황 보도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의 과일 행사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 단속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신한 것을 계기로 '아랍의 봄'은 시작됐다. 아랍의 독재자가 축출되면서 한때 장밋빛 미래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 민주 선거까지 치른 튀니지와 이집트는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정국 불안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리비아와 시리아는 부족, 종파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나라가 갈기갈기 찢길 위험에 처해 있다. 뉴스위크(Newsweek)지는 2년여가 지난 아랍의 봄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사라지고 혼란이 가득하다고 진단한다(The Dashed Revolution: Two years later, disillusionment has replaced hope in the Middle East).



2011년 2월과 3월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각각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 곧바로 내전이 발발했다. 리비아에서는 부족 사이의 권력 다툼이 내전의 불씨가 됐고 여전히 부족 간 유혈 충돌 및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뿌리 깊은 종파 간 갈등으로 격렬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리비아, 시리아는 애초 부족, 종파 간 권력 투쟁 양상이 강

은 시리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알라위파 출신으로, 1971년부터 알라위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다. 전체 인구의 74%인 최대 종파인데도 권력에서 소외된 수니파는 이번 기회에 알라위파를 제거하겠다는 심산이다. 미국은 알야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사태

에 침투했다. 리비아 정부는 13일 외교관 보호를 위한 경호 전담 부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내에는 500여개 부족이 만든 수천 개의 민병대가 있고, 정부는 이들에게 치안 업무를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민병대 사이에 자주 무력 충돌이 벌어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비아 내전에 뛰어들 민병대는 아직 무기

으로 자유 민주선거를 통해 6월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무르시 대통령의 '현대판 파라오 헌법 선언' 발표와 이슬람 율법 반영이 과거보다 더 엄격해진 새 헌법을 둘러싸고 양측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 민주주의 향한 강한 대중정서가 아랍의 봄 가속화 시켜 "이스라엘 시작 잇따른 중동 6개국 선거 결과 따라 이슬람 원리주의 정착 vs 자유주의 외연 확대 결정"

해 독재에 항거한 튀니지, 이집트와 달리 근본적으로 민주화 혁명으로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가 나오고 있다.

바샤르 알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2개월째 진행 중인 내전 동안 모든 화력을 동원해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6만여 명이 숨졌고, 국내외 난민 260만여 명이 발생했다고 로이터가 15일 보도했다.

현재 알야사드가 속한 종파인 알라위파(시아파 분파)는 북부 산악 지대와 서부 해안지대로 집결 중이다. 이곳을 제외한 동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반군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 격전지에서 알야사드를 몰아붙이고 있다. 알야사드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반군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리아가 동서로 나뉘어 '수니 대 시아'의 종파 간 전쟁으로 변한 것이다.

하페즈 알야사드와 그 아들 바샤르 알야사드, 전, 현직 부부대통령

해결을 맡겨야 한다며 군사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내전이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첫째는 아사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전쟁을 계속하기로 선택하면 반군과 정부군의 전투는 한 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것으로 추가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마지막은 아사드 정권이 국제사회의 중재로 야권, 반정부 단체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해결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리비아 역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 원수가 2011년 10월 사살된 후 리비아는 극심한 정정 불안에 휩싸여 있다.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자 부족 간 알력 다툼이 본격화한 것이다. 알카에다에 적대적이었던 카다피가 숨지자 알카에다까지 리비아

를 반납하지 않아 정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리비아의 정국 혼란은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아가 걸로리는 근대국가 형태를 갖춘 듯 하지만 정서적으로 부족적 전통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카다피가 속한 카다피 부족이 집권한 42년 동안 권력에서 배제된 다른 부족들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아랍의 봄'을 성공적으로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집트 등 일부 아랍권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철권통치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이집트는 60년 만에 처음

결국 '아랍의 봄'이 2010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넘실거리기 때 대다수 언론들은 장밋빛 미래와 희망을 얘기했다. 독재, 정권 부패, 경제 불황, 정치적 탄압, 인권 남용은 한 번에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 지난해 회의론은 희망을 압도했다. 이집트에선 독재자가 사라진 대신 무함마드 에스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집중했다. 자유주의, 좌파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눌려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성 인권은 제자리걸음이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 665-0009 (대표) / (323) 665-9025 (광고국)  
·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2월 13일부터 사순절 시작...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경건한 삶을 보내는 절기 사순절이 올해는 2월 13일(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사순절의 유래는 초기 교회사 또는 로마가톨릭교회에 속했던 중세기부터 전래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훈련을 하며 부활절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훈련을 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구주로 모셨는가 반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의미**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t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다.



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신앙을 재 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사순절은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자신을 배풀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 의미가 변천해 가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금 그 무한한 사랑에 붙잡혀야 하고, 나의 몸을 고난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중심에 서있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일에 사순절 교회교육의 중심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형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쁜 생활에서 잊기 쉬운 경건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사순절의 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유래**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하여 두 주간의 준비기를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성도로 영접된 사람들 모두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썼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됐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됐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습이 됐고,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됐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됐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됐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됐다.

**주일예배**  
사순절 절기 안에는 6번의 주일이 있다. 그 중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각 주일에는 단계와 특색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받으셨음을 생각하며 지낸다(마4:1-10).

▲둘째 주일은 사단의 시험을 아기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마4:11).

▲셋째 주일은 빛과 어둠의 대립 즉, 빛의 아

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말씀(요1:1-18)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

▲넷째 주일은 사순절 중간에 끼어 있어 '사순절중절' 또는 '휴양 주일'(休養週日)이라고 불린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고난과 사단과의 싸움 등을 다루는 사순절의 다른 주일과는 달리 딱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말씀을 삼는다(마14:13-21).

▲다섯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일의 명칭은 주님이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때는 가롯 유다에게 팔리어 고난 받으셨던 주님에 대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마20:18,19).

▲여섯째 주일, 즉 종려주일(Palm Sunday)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군중들에 관계된 말씀을 본다(마21:1-11).

**교회력**  
1. 속죄일(재의 수요일) : 2월 13일(수)  
사순절 시작일로 성경에서 재는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2. 종려주일 : 3월 24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일이다.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3. 고난주간 : 3월 24일(월)-30일(토)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고난의 절정기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주간을 의미한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며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기간이다. 이 주간을 성주간(Holy Week)이라고도 한다.

4. 세족 목요일 : 3월 28일  
세족(Maundy)는 라틴어의 울뎀이라는 의미로 이날은 예수님이 유월절인 목요일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13:34)라는 가르침을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세족일이라고도 한다.

5. 성 금요일 : 3월 29일  
부활절 전 금요일로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이다. 슬픈 날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기에 Good Friday라고 한다. 성금요일(Holy Friday)라고도 한다.

## 맘몬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1면에서 계속〉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치 활아버지처럼 우리말이라면 다 들어 주고 우리가 가져고 하면 다 가져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마음이 먼저이다.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소명과 함께 자기 부정과 헌신을 선포하기 보다는 성공을 위한 야심만을 가르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선포한다. 사람들은 맘몬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서 나를 것을 말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총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성공하라고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해주고는 있지만 영혼에는 아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타협은 곧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부른다. 크리스천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제는 종교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돌아선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축복만을 받으려하고, 훈련받아서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예배를 즐기는 소비자가 됐다.

또한 교회가 불신자 전도를 위해 "구도자 예배"만을 강조하다보니, 교회에 찾아 온 사람들은 익명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소명을 통해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렸다. 유명한 사회학자 벨라 교수의 말처럼 "종교적 개인주의는 반드시 커뮤니티나 공적 영역으로 재 연결되도록 변형돼야 한다"는 교훈이, 교회공동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교인들은 제자로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목회사역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이들을 예배자가 되게 해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있다.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한다. 그런 교회는 성공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속적인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한다.

이미 있는 사역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즉 하나님께 굴복하고, 헌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과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즐거움만을 따라다니는 불나방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선물과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더 좋고 새로운 세상 것을 가지려는 유희들을 담아내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는 영혼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야한다. 그럴 때만이 물질만능주의, 맘몬에서 해방되는 또 다른 출애굽과 탈애굽을 시도할 수 있다.

## 혼돈 속 아랍의 봄...민주화 전진 기대

〈2면에서 계속〉  
아랍의 봄이 거쳐 간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후퇴와 치안 불안을 호소했다.

정치 분열, 경제 불안으로 장식된 1막을 이제 막 끝낸 아랍의 봄은 올해 3주년을 맞아 2막을 열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 달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에서 잇달아 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아랍의 봄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정착할지, 자유주의 진영으로 외연을 확대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으로, 아랍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노(No)'다. 민주화 바람은 혼란 속에서도 전진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대중정서가 아랍의 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전통적 미디어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의 간극은 중동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권력이 장악한 기존 뉴스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대안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유통하기 때문이다. '권리' '민주주의' '헌법'처럼 한때 금기시된 단어들이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린다. 아랍 지도자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러한 시민 열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혼란이 있어도 희망은 계속되는 것이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3)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 ~ 20(Mon), 2013.
- 2) Place: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Amos 9:11-15
  - (2) NT Exegesis Text - Matthew 16:13-20
  -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NT: Luke 9:23-27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hoo1004@hotmail.com](mailto:shoo1004@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sChoi\_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August of 2013.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Heo (201981-0009, [shoo1004@hotmail.com](mailto:shoo1004@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Samuel Heo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 [shoo1004@hotmail.com](mailto:sho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field, NJ. 07657 / Cell : 201-981-0009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Chan w. Song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mailto:chansong_hase@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oo1004@hotmail.com](mailto:shoo1004@hotmail.com)
- 3) nquires in English : Rev. Hanks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mailto:hankschoi@gmail.com))  
Rev.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mailto: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김남수 목사    서기 : 이원호 목사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고시부 서기 : 허상희 목사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목회 20년간 참 열심히 일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했지만 제 아내가 저를 하숙생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매일 아이들이 저는

새벽에 집을 나와서 아이들이 자는 밤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의아해서 물었더니, 두 아이에게 아빠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저 같이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목회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크고 넓은 새 건물을 이사를 와서도, 최근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담임목사님들이 그렇게 넓은 사무실에 좋은 가구와 크고 긴 회의용 탁자를 놓고 권위를 갖추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사무실 공간에서 가장 볼베는 복사가 있는 곳에 제 사무실을 정하고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

어놓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1불도 제 마음대로 쓰지 않았고, 재물에 욕심을 내어 사례 인상이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서,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인도할 때에 제가 주장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편안했습니다. 20년간 목회를 하며 제가 부족하여 성도님들과 의견충돌도 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사과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항상 저였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대히 전하되, 담임목사로서 제가 가진 권위와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성도님들을 압박하지 않았고, 두어 번 방문하셨던 저의 어머니도 저의 지위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으시지 않도록 조심하였습

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착하고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목사라는 분이 넘치는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곧 술, 세상, 욕망에 중독되어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면(행 26:18), 저의 열심히 착한 것도 어떤 업적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 목회와 설교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변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50년 설교를 듣고 20년 성경공부를

하고 1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목회자들의 절망이 있고, 부모님의, 감독 간수들의, 선생님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나를, 내 자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서서 제 모습을 살펴봅니다. 잘해야 인간수준인 저의 착함, 열심히,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201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변화, 영혼 구원이라는 참 열매를 맺기 위하여.

# 푸/른/초/장

김향안 목사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위기와 고난을 알면서도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올라가셨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사명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

### 2. 예언된 고난을 모두 받음 예수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 예언된 대로 희롱, 능욕, 침 뱉음 등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지난 후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다. 고집갈래(苦盡甘來)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

난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 3. 죽음을 당하여도 살아나실 예수님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입증하셨다. 사명을 감당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셨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으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내리쬐는 햇빛에 목이 마르셨다. 결국 피와 물을 다 흘린 후에 돌아가시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을 향 한 길이다. 우리도 주님같은 이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 4. 비밀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말씀 하셔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일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한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서 원하는 것만 듣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원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지만 하기 싫다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며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실망스럽다는 의미이다.

제자들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깨달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계시라고 한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의미 있고 경건하게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하셨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과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셨다. 왜 그럴까? 고난을 받아 죽으러 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부활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다. 순종의 길의 끝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려 예

##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누가복음 18:31-34

우리는 아픔보다는 건강이라는 말이 더 좋다. 슬픔보다는 기쁨이라는 말이 더 좋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더 좋다. 실패라는 말보다 성공이라는 말이 더 좋고 고통이라는 말보다 상쾌함이라는 말이 더 좋다. 그러다보니 한국교회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넘치고 있다. 물론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기본 좋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 문제는 축복에 대한 개념과 방법이다. 현실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다. 다른 교회에는 축복이 없고 우리 교회에만 축복이 있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우월주의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축복은 다양한 차원이 있다.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초월적이기도 하고 육체에 관한 차원도 있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도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초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축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통전적 차원에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 하나님은 예수

님의 고난을 통해 높은 차원의 복을 주셨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운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바울에게 사역의 길은 인도하고 도와준 사람은 바나바

이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나타났는지를 더 확실히 알고 믿어보자.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데리고 예

### 1.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실 예수님

이고 바나바의 스승은 베드로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강조했다.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같으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겠는가?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 싫다고 회피하며 거절하거나 다른 곳에 먼저 갈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혹은 아무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 버리고 말 것이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을 통해 알려졌는데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하

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 곁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은 기초와 길을 닦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정작 자기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사례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회피하거나 영광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광 없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영광 없고 내게 할당된 영광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광을 주신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사55:8-9).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고

# 미주 갈멜산기도원 1주년 감사 기도성회

|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저녁) ~ 21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818) 306-4912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조성근 목사 성회 일정

2013 기도성회			
1일 ~ 3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포항교회(김영주목사)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특별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3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미중전선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일 ~ 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6일 ~ 8일	한영교회(이일목사)	27일 ~ 30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1일 ~ 13일	청마중앙교회(김영우목사)		
2012 기도성회			
2일	햇볕교회(이숙희목사)	3일 ~ 6일	청일교회(박연호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10일	순복음성마교회(이일성목사)
4일 ~ 7일	GST 30차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신남교회(김영현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국목사)		
1일	드림교회(정순식 목사)	3일 ~ 2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3일	서울남노회(통합) 향촌지체미나	6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9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7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미중전선 목사)
13일	한반도 회복 기도회	13일 ~ 16일	GST 29차 신학생 여름훈련
19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26일 ~ 29일	수원대학교(이영호 목사)
5일	순복음성마교회(이일성목사)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9일	한국중앙침례교회(한기용목사)	8일 ~ 10일	동광교회(김순갑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2일	만나교회(김영삼목사)
16일 ~ 19일	임성교회(김교문목사)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6일 ~ 19일	임성교회(김교문목사)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 2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0일	인천대학교(이영호 목사)
1일 ~ 3일	만리교회 (이형목사)	2일 ~ 4일	해성교회(한영송목사)
4일 ~ 6일	전주성복교회 (이정남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1일	수원침례교회 (홍우석목사)	13일 ~ 22일	LA미주 갈멜산기도원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3일 ~ 22일	GST 미국 미션 리서치
15일 ~ 2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 (GST)	30일	신학생철야 송년의 밤(GST)
26일 ~ 29일	예일교회(김윤중목사)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 예배



2013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기도성회모습(예루살렘성전, 가나안성전 및 부속건물)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의 장점과 단점 분석 Ⅱ

### 오바마케어의 장점

오바마 케어는 수백 개가 넘는 소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 통과된 이후 계속적인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2012년 6월 5대 4의 투표결과로 합법이라는 재결정이 내려져 반대운동을 벌이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오늘은 오바마 정부가 어떤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는

을 몇 가지만 정리한다.

△오바마 케어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보호를 추구한다.

△보험회사들이 더 이상은 자기들 맘대로 환자들의 보험커버리지를 폐지시키거나, 또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여성이 남자보다 더 많은 보험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기존병력에 의한 의료보험 차별대우를 없애준다. 더 이상 보험회사에서 19살 미만의 아이가 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가입 또는 보험커버를 병원에서 부터 거부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예를 들어 전식이나, 유방암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실현되는 시기는 2014년으로 미뤄졌다

살 이전의 자녀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2011년엔 적어도 \$3,380달러이고, 2012년에는 \$3,500달러를 지불하면 자녀를 가입시킬 수 있게 했다. 만일 회사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의 0.7%를 그다음해에 내야 하고, 2012, 2013년에 1%의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계속 2%에서 4%까지 올라갈 것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보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빈곤선(FPL - Federal Poverty Line) 기준은 개인일 경우는 133%로 확대됐으며, 가족일 경우에는 빈곤선의 40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의료보험 비용은 낮추고 커버범위는 넓히겠다” 주장 한계기준 폐지, 소기업에 혜택, 메디케이드 확대 등 장점

지 오바마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는 건강 의료보험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어주되 보험 커버범위는 넓혀줌으로서 보험비용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그들의 취지라고 한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사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신 보험가입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느 정도 도와주게 된다고 한다. 미국 의회에 의하면 그들의 목적은 2010년에 19%의 사람들이 아직 건강보험이 없다고 볼 때, 2016년까지 무보험자들의 퍼센티지를 8%로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내 무건강보험자는 4만5천명에 달한다. 이것은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 의료혜택받주에 들지 못하는 22세에서 64세의 성인들 중 3명중 1명은 아파도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라고도 한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에서 그동안의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계획으로는 10년 동안 1천3백8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오바마 건강보험의 혜택

△의료보험의 한계기준을 없애준다. 환자들 중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커버가 더 이상 환자를 커버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오바마케어는 이런 문제들을 2014년부터 없애준다.

△의료보험이 무효화되는 것을 없애준다: 의료보험회사들이 환자가 의료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을 무효화 시키는 일이 없다.

△환자들이 내는 프리미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한다. 오바마 케어의 80대 20의 법칙에 의해 만일 의료보험회사에서 환자가 낸 80% 이상을 환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면 환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환불제도는 2012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비를 10%이상 올리려고 할 때는 환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소기업에게 주는 세금 혜택: 지금까지 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프리미엄을 18% 정도 더 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더 낸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게 됐다. 2011년에만 거의 36만 소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았다.

△예방처방들은 무료커버: 유방암, 당뇨, 혈당 검사, 노인병을 위한 검사 같은 것 등을 코페이(co-pay)나 디덕터블(deductible) 없이 처방 받을 수 있다.

△가족보험이 있는 가정 혹은 26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부모 건강보험에 함께 넣어줄 수 있지만 저렴하지는 않다. 보건건강협회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어른 또는 26

빈곤층 기준을 확대했다. 즉 4인 가정 연소득이 3만-8만8천 달러인 경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의료비를 내야하는 연간 프리미엄은 개인 연소득의 2%에서 9.5%가 된다.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 저소득계층인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 기준이 133%(대략 3만 달러에서) 150%(대략 3만5천 달러)까지는 시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프리미엄을 연소득의 3-4%만 부담하면 된다.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이 150%부터 200%일 경우에는 4%-6.3%를 부담해야 하고, 연소득이 200-250%일 경우에는 6.3%에서 8.05%, 연소득이 250%-300%일 경우는 8.05%-9.5%, 연소득 300%-400%일 경우엔 9.5%를 부담한다. 이 연소득 빈곤선의 기준은 2016년 다시 바뀌게 되는데 개인 연소득이 11,800달러로, 4인가정일 경우 24,000달러로 바뀌게 된다.

△노년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어는 처방 약값 지원에서 제외된 '노니츠 홀'(Medicare Part D coverage gap - 메디케어의 메꾸지 지 않은 공백)을 메꾸기 위해 2012년부터 1인당 250달러를 환불해주고 2011년부터는 브랜드약값도 50%를 할인해줘야 한다.

오늘은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오바마 케어에 왜 수백 개의 소송이 들어가 있는 지,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며, 얻고 잃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연령을 46억년 정도로 보는데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는지요? 기독교 과학자들의 주장과 진화론자들의 주장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팔로스버디스에서 오 집사

**A:**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출간한 “기원과학”이란 책에 의하면 수많은 지층과 협곡들 화석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동일과정(uniformitarianism)이라는 학설입니다. 즉 지구표면의 모든 산과 계곡, 지층 등은 바람이나 강, 파도 등의 자연력에 의해 무한히 긴 시간에 걸쳐 침식과 퇴적과 운반이 반복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곡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지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증거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학설은 영국의 허튼(J. Hutton)과 라이엘(C. Lyell)이 창안한 학설이며 생물학자 다윈은 이 학설에 깊은 영향을 받아 진화론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진화론의 학설이 과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심히 모순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 지구나이 1만년 이하, 노아홍수 이후 대격변... 동일과정설은 맞지 않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지구가 물로 덮인 후에 땅이 형성되는 과정이 성경에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지구는 창1:2을 보면 깊은(히:태흙-깊은 물) 즉 깊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위에 흑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물이 드러나는 첫 번째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창1:9). 이 땅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땅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을 말할 때 죄를 미워하여 심판으로 만들어진 변형된 두 번째 땅의 모습입니다(창7:11-8:5). 모두가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셋째 날 만들어진 땅에는 없는데 홍수 때 만들어진 땅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석(fossil)입니다. 셋째 날 만들어진 땅은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화석이 있을 리 없습니다. 홍수 때 만들어진 땅은 전 지구적인 격변이었고 당시 살고 있던 생물의 많은 양이 매몰되었으므로 화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7:19-20에 의하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전 세상을 덮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홍수는 하나님이나 특별한 지정한 생물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지표상의 기식동물들(창7:21) 사멸시켰을 뿐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홍수는 하나의 큰 격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침식과 퇴적을 받아 현대의 지형이나 지질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에 기초를 둔 동일과정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일반교과서에서 기본적인 이론으로 채택되고 있는 지형의 유희설이 최근 부정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형유희설에서는 지각운동이나 구조운동 화산운동 등 격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형은 서서히 진화한다는 가정 하에 그 이론을 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홍수가 시작될 때 큰 깊음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대규모의 지각운동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0m가 되는 호수에서도 다량의 염분이 함유된 곳이 있으며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도 물고기 뼈와 조개껍질이 발견됩니다. 또 퇴적층을 관찰하여보면 대홍수가 있을 후 대홍수 말기에 전 세계에 걸친 조산운동으로 스칸디나비아, 알프스, 히말라야, 페루-안데스와 같은 높은 험난한 산지들이 형성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과학자들은 지구의 연령을 10,000년 이하로 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 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수단의 바가라(BAGGARA)



수단 북부의 수많은 바가라 부족들은 많은 문화적 특성이 공통적이고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 모두 바가라어라는 아랍 방언을 사용하며 이 언어는 아랍어와 수단어 아랍어 사용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들의 이름은 '바가르'(bagar)라는 아랍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소"를 의미하며

수단과 주변 국가들에서 소를 치는 다양한 아랍 부족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바가라 부족들은 수단의 다르푸르, 북부 코르도판,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평야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소를 방목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북부 지역의 관목이 생긴 땅에서부터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황무지와 밀립이 우거진 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는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 우기에만 내린다.

바가라 부족들의 기원은 몇 세기를 거슬러 모하메드 이전의 시대에까지 올라간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인 헤자즈의 주베

이나족(Juhayna)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삶의 모습

바가라족 대부분은 목자들로 양과 염소를 기르기도 하지만 가축은 소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타거나 짐을 부리기 위해 낙타도 기른다. 바가라 유목민들은 "푸르간"(furgan)이라는 캠프 조직으로 거주하는데, 푸르간의 구성원들은 대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계에 속한다. 이들은 단순한 동형의 텐트에서 살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구조로 돼있다. 텐트치는 방법은 땅에 구멍을 파서 어린 나무들을 박은 다음 그것들을 위에서 구부려서 꼭대기에서 묶는다. 좀 더 작은 가지를 묶어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엉이나 천으로 덮는다. 텐트들은 원형으로 배치되며 그 안으로 밤에 가축들을 몰아넣는다.

대부분의 바가라 부족들은 유목

민이지만 농촌공동체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가옥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 추가지붕을 얹는다. 가족 새끼를 위한 축사는 마을 안쪽에 짓는다. 목초지는 대개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농지는 개인 소유이다.

바가라족은 여자들이 가계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 일한다. 그소의 우유를 짜고 우유나 유제품을 팔아 현금을 벌어들인다. 그들이 번 돈은 가재도구를 사는데 쓰거나 저축한다. 기혼여성들은 그 가재도구 모은 것과 텐트를 소유하고 있다. 남자들은 주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며 곡물을 심고 수확한다.

바가라족의 결혼은 종종 일부다처제가 된다. 사촌간의 결혼이 선호된다. 남편 될 사람이 그의 가까운 친척이 "신부값"을 지불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혼부부는 사부모 근처에서 살게 되며 나중에 남편이 정하는 장소로 이주한다.

이때 신랑의 가족들은 또 한번의 잔치를 연다.

바가라 사회는 부계혈통으로 자손의 혈통이 남자를 통해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각 캠프는 "샤이크"(shaykh)라는 남자 지도자에 의해 통솔되는데, 이 직위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지만 캠프의 성인 남자가 모두가 이러한 직위계승에 동의해야 한다. 샤이크는 캠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서 결정을 내리는 남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그의 지혜와 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 신앙

바가라 부족은 거의 100%가 무슬림으로 8개가 수니파(Sunnis)이며, 나머지는 말리크(Maliki) 종파에 속한다. 그들 모두 "이슬람의 5가지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지키므로 많은 남자와 여자들도 일부

메카로 순례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종교적 축제를 열며 삶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통과 의례들도 중요시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바가라 부족에게는 극히 적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의 일부가 바가라어로 번역됐고 기독교 방송도 일부 그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슬람 신앙에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기독교 개종자는 극히 적다. 게다가 유목적 생활양식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현재 바가라 부족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전혀 없다. 자질 있는 사역자들이 이 무슬림들 가운데 거주하며 사역하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도 와 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동성애자 보이스카우트 가입 논란

미국 최대 청소년 조직 중 하나인 보이스카우트가 동성애자 가입 허용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베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슈퍼볼 경기 전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성애자의 보이스카우트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나 모든 단계에 가입할 기회가 있고 동성애자도 그래야 한다"며 "스카우트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고 리더십을 고양하는 훌륭한 단체로, 누구도 스카우트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릭 페리(공화당) 텍사스 주지사는 보이스카우트가 동성애자 가입금지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페리 주지사는 지난 2일 "대부분이 동성애자 금지 정책을 바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고 나도 그렇다"며 "대중문화를 좇아 100년 동안 이어진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프레드 세인즈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페리 주지사가 잘못된 역사의 편을 든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하나의 국민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페리 주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 단체들은 보이스카우트의 동성애자 정책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 '21C에 종교는...' 대논쟁서 도킨스 판정패

로완 윌리엄스 전 캔터베리 대주교가 '전투적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와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4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성공회 수장을 지낸 윌리엄스 전 대주교와 '만들



어진 신'이란 책으로 유명한 도킨스 교수는 지난달 31일 케임브리지 유니언 소사이어티(CUS)에서 '21세기에 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는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CUS는 케임브리지대학 내 최대 토론모임으로 1815년 설립 이후 윈스턴 처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전 세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해왔다. 이날 토론 직후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21세기에 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는 명제를 거부했다. 도킨스 교수가 324표 중 136표밖에 얻지 못해 윌리엄스 전 대주교에 진 것이다.

'신은 땅상의 산물'이란 신념을 가진 도킨스 교수는 토론회에서 "종교는 잘못된 설명을 퍼뜨림으로써 과학의 노력을 저해한다"며 "종교는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는 인간의 지적능력에 대한 배반이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배반"이라고 도발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전 대주교는 "종교는 늘 공동체를 만들고 연민의 관계와 동류의식을 만드는 근원이 돼 왔다"면서 "종교적 헌신을 순전히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종교의 역사를 거스르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인권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는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옥스퍼드대에서 '신은 있는가'란 주제를 놓고 처음 격돌했다. 외신들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헤비급 타이틀전'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으나 기대했던 화끈한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당시 도킨스 교수는 "다윈은 우리에게 무(無)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전 대주교는 "난 21세기 과학의 문제는 21세기 과학으로 풀려고 하지만 우주에서 내 위치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본다"고 응수했다.

#### 가주 내년초 라틴계가 백인 인구 추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히스패닉계가 향후 6개월 내 백인 수를 따라잡고, 내년엔 아예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



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 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인구 예상분포도에 따르면 지난해 11.6 대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히스패닉계가 내년 초면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ABC 방송과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6월이면 백인과 히스패닉계가 약 39%씩 분점 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종 및 소수민족 분포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오는 2020년이 되면 히스패닉계가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41%를 차지하고, 백인은 37% 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점점 더 차이가 커질 것임을 강조했다. 또 2060년이 되면 백인 수가 30%로 줄어들고 반면 히스패닉은 48%로 증가, 캘리포니아 주가 완전히 소수민족 중심 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13%의 인구비를 차지하는 아시아계도 2060년엔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다만 흑인은 지난 2010년 약 6%에서 2060년 4%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도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뉴멕시코 주와 하와이 등 2개 주에선 백인이 소수다.

#### '샌드위치' 세대, 침체충격 가장 심각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인 미국의 50대와 60대 초반이 경기 침체에 소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데이터 분석기관 센터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이들 세대의 충격이 가장 크면서 한 예로 3년 전 경기 회복이 시작됐을 때보다 가계 소득이 10%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대부분 은퇴가 임박했으나 메디케어(노령자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수혜 대상도 아닌 어정쩡한 세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실업률 상승으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자식도 뒷바라지해야 하는 이른바 '갭 세대'(Generation Squeeze)이기도 하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악조건 때문에 이들 세대가 더 일찍 죽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악조건 속에서 건강 악화과 소득 및 심리적 불안까지 겹치기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웰리스리 대학이 최근 낸 연구 보고서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에 실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고 3년 먼저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는 뉴욕타임스는 상기시켰다. 신문은 더욱이 노령 취업도 쉽지 않고 어렵사리 다시 일 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받는 돈이 이전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도 이들 세대를 압박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지적했다.

#### 미 슈퍼볼에 '총기규제' TV광고 등장

매년 1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광고가 등장했다. 3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가 맞붙는 이날 슈퍼볼의 3번째 쿼터 직후 워싱턴DC 지역에는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TV 광고가 방송됐다.

마일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주도하는 단체 '불법총기에 반대하는 시장들(Mayors Against Illegal Guns)'이 내놓은 30초짜리 광고는 미국총기협회(NRA)를 비판하면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 확인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이 바로 그때(It's Time)'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아메리칸 더 뷰티풀(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어린이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NAR는 한때 신원조회를 지지했었어"라는 한 어린이의 목소리와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이 1999년 의회 발언에서 발언한 장면이 이어진 뒤 "미국은 우리를 위해 이걸 할 수 있어야"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슈퍼볼 광고에는 한국 가수 싸이(박재상·36)의 미국 인기 스킵 브랜드 '원더풀 피스타치오(Wonderful Pistachios)'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CBS TV가 3일 생중계한 제47회 슈퍼볼 동중 하프타임 광고로 공개됐다. 광고에서 싸이는 거대한 피스타치오 껍질을 깨고 등장, 피스타치오로 분장한 댄서들과 함께 '말춤'을 추면서 피스타치오 껍질을 쪼개는 방법을 알려준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টে모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5)

## 3)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지는 남북길이 75Km, 동서의 폭이 약 55Km인 비교적 크기 않은 지역이며 사마리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는 지질학적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자연 경계선이 없다. 그러나 지형적 차이는 분명한데 사마리아 산지는 유다 산지와는 달리 산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지형의 형태상 변화도 심하다. 사마리아 산지는 강우량이 유다 산지보다 많고 풍화작용도 심한 곳이어서 깊은 계곡들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계곡들이 대체적으로 서쪽, 북쪽, 남쪽으로 연결된 형태이며 사마리아 산지의 중심부로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사마리아 산지는 폐쇄적인 유다 산지보다 외세의 정치, 문화, 종교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마리아 산지는 남북으로 형성된 산지의 분수령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뉜다. 서쪽은 사론 평야와의 사이에 중간적인 없이 완만한 경사로 해안지방에 연결돼 바다 쪽으로 형성된 서편 경사지에는 포도와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며 계곡지역에서는 곡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편은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서 산세가 험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서쪽보다는 강우량도 적어서 농사는 불가능하고 단지 목축을 위한 초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마리아 산지의 동편지역은 요단계곡과 인접해 있어 절벽형에 가까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런



베냐민 평지

급경사는 요단 계곡과 연결돼 있는 여러 계곡들이 남서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이 계곡 중 가장 큰 계곡은 디르사에서 시작돼 요단강으로 연결되는 와디 파라이다.

이 와디 파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특히 하스모니안 왕가는 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요새를 건설했다. 이 요새는 이후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탈을 알리는 봉화대로 사용됐다.

사마리아 산지의 서편의 완만한 경사지에도 큰 계곡들이 있다. 남쪽으로는 벤엘 산지와 만나는 경사지, 서쪽으로는 사론 평야와 만나는 경사지, 북쪽으로는 하트 계곡과 만나는 길보아산 지역으로 길보아산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쪽의 거대한 평원형 계곡인 요단 계곡은 지각운동에 의해 형성된 계곡이며 요단강 지역이 넓

고 비옥한 토양의 평원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고 계곡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다.

중앙부분에는 북쪽의 에발산(940m)과 남쪽의 그리심산(881m) 사이에 세계 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소고에서 시작된 세계 계곡은 산지의 중앙부를 거쳐 디르사에서 시작되는 파라계곡과 연결돼 있다.

세계 계곡은 파라계곡과 더불어 사마리아 산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 계곡은 사마리아 산지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산지의 중앙부를 진입하는 교통로가 되기도 한다.

남쪽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양쪽으로 급경사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더욱 깊어진 레보나 계곡이 있다. 이곳은 실로의 남쪽에 위치한 요단 계곡으로서 실로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사21:19).

이 사마리아 산지와 계곡은 비옥한 테라로사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중요한 경제생활의 기반이 농사이며, 밀, 올리브, 포도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이 재배되며 양과 염소도 방목했다.

## (1)므낫세 (Manasseh 세겜 북쪽-이스라엘)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사마리아 북부 지역을 분배받았다. 사마리아 남부지역보다는 비옥하지 않지만 동서남북으로의 통행에 편리한 길들이 있어 도시가 발달되었다. 주요 도시는 도단(창 37:17), 사마리아(왕상16:24), 세겜(수라성), 다르사(왕상15:21) 등이 있고, 사론-사마리아-세겜-디르사-와디 파라-아담-압복강으로 이어진다.

주요 산으로는 에발산(저주를 뜻함, +940m), 그리심산(축복을 뜻함, +881m)이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하던 여호수아는 세겜의 그리심산(수8:33-35)과 에발산에서 12지파를 모아 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언약을 갱신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했다(수8:30-35).

## (2)에브라임(Ephraim, 세겜-벤엘)

사마리아 남부지역이고 에브라임이 분배받았다. 북부보다 높은 지대로서 산악고원을 이루었는데, 바알, 하술은 가장 높은 곳으로 광대한 초목지대가 형성돼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 세겜(창12:6)-실

로(수18:1)-벤엘(창28:10-32)-예루살렘으로 족장의 도로이다.

## 4) 베냐민 평지

(22x43.5 km 벤엘-예루살렘-아얄론/여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 근처에 위치해 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여리고를 지나 트랜스 요르단을 넘어가는 최남단의 통행로와 서쪽으로 평지(세펠라)를 지나 해변 길에 이르는 산지 중앙에 있다. 남북 능선로인 족장의 도로 산지 동쪽 끝을 지나고, 게셀-여리고는 동서 도로다.

특징으로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완충지대이며, 가나안 점령의 첫 도시들이 여기에 있다(여리고, 아이, 기브온, 기브아).

## 5) 유다

### (1)유다산지

사마리아 산지 아래에는 유다 산지가 있다.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방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지형상 중부에 있는 유다 산지와 그 동쪽에 있었던 유다 광야로 나뉘어졌다. 유다 산지는 지대가 매우 높아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연 강수량 500-700), 겨울에는 한 두 차례 눈이 내리기도 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산지에는 일반적으로 감람나무를 재배했지만 유다 산지는 포도농사로 유명했다.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이 메고 왔던 큰 포도송이는 이곳에 있던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것이었다(민13:21-24).

### (2)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동편에서 남쪽에 있는 베냐민 유다 산지의 동편에 있는 광야였다. 유다 광야의 북쪽경계는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아골 골짜기였으며,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이었다. 이곳은 남북으로 96km, 동서로는 16km 되는 광야 지역이었다.

유대산지 정상으로부터 동쪽지대를 유대광야라 부르는데 엔게디와 조금 작은 몇 개의 요새지 및 거주지를 제외하면 정확히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유대 산지의 가장 높은 곳에 내리는 강수량은 연중 700mm정도로 많은 양에 속하지만 정상 바로 동쪽으로는 강수량이 점차 감소해 예루살렘 동쪽 10Km 지점에서는 300mm까지 낮아지며, 염해(사해) 근처에서는 50-100mm까지 줄어든다.

유대 산지의 남쪽으로 여러 지역들은 마을 이름을 따라 드고아, 심, 마온 광야 등으로 불렸으며, 광야에 가까운 서부 유대 산지는 깊은 계곡들과 비탈 동굴들이 많아 피신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헤브론은 가장 높은 유대 산지의 중앙에 있다.

또한 유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가 마름으로 모래뿐이지만 비가 온 후에는 푸른 초장으로 변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곳이다. 이곳은 계단식 농업이 발달했고 주요 작물은 올리브와 포도, 밀, 뽕나무 등이다(사5:1-7, 요15장).

(다음호에 계속)

# 가정사역 칼럼 복수당하는 부모들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얼마 전 읽은 책 중에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란 책이 있었다. 책의 내용 속에는 어린 시절 충분히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사춘기 자녀의 방황 등으로 부모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내용을 쓴 책이었다. 애착은 평생 삶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애착이란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볼비(J.M. Bowlby)가 정의한 바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는 생후 첫 일년 동안 어머니와 가

깝게 지내는 것을 통해 애착관계의 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 경험이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루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심리구조의 수준을 규정짓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세상을 탐구해가고 분리되어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시절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되며 삶에서의 발달과제도

더 잘 다룬다는 보고가 있다.

태어나서 1년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기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어린아이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정서적인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뇌의 전두엽 발달에 장애가 생겨 절제하는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훨씬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후12개월 이전에 주 양육자와 떨어지는 경험은 아기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같은 두려움

과 불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지 못한다 해도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도록 하며 엄마는 아기의 양육과정을 알고 있도록 하고 수시로 엄마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3세 이전에는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단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야단이나 꾸지람을 듣더라도 애착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있지만 엄마는 식사준비로 바쁘고 아빠는 신문보고 아이에게는 장난감이나 TV를 틀어주고 혼자 놀게 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애착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애착관계형성을 위해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드러난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어렸을 때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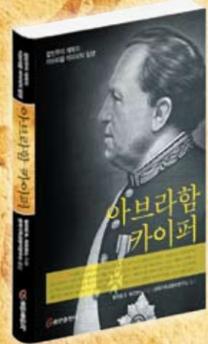
이처럼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어려서부터 음식투정, 잦은 병치레, 까칠한 성격, 학습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청소년기에는 자제력이 떨어져 충동적이고 외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이렇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기 때 투자해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된다. 자녀의 삶의 초기 3년간의 투자로 적어도 40-50년의 시간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려면 태어시기부터 태명을 지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아기와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애착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그 다음은 갓태어난 아이를 엄마 아빠의 배위에 살과 살이 닿도록 얹어두는 스킨십이다. 아기는 태속에서 들던 심장박동소리를 엄마 가슴가까이 들으며 낯선 세

상에 태어나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갓난아기의 가지거리는 20cm 정도인데 모유수유를 하며 아기와 부드러운 피부 접촉을 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웃어주고, 안아주는 것은 중요하다. 모유 수유를 하며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부모가 잘 반응해 주고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면 아기의 뇌는 자극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게 되어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기본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모유수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익혀야 할 기술이다. 저희기관(FBM: 가정 세우는 사람들)에서 진행되는 모유수유 교육을 통해 80-90%의 엄마들이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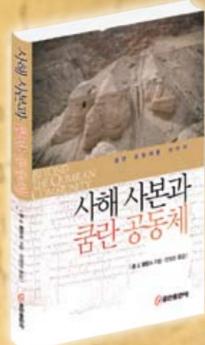
# 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헤성 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교문을 창간하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나 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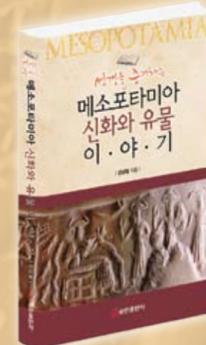
##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쿨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타래처럼 얽어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쿨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쿨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이 .야.기

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프링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극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24. 언어의 기원

사람과 동물들과의 큰 차이점들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은 말을 한다는 점이다. 사람과 가장 닮은 침팬지조차도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민족이나 집단도 원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발달 중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또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2012: Vol. 335 no. 6069 p. 657). 뮌헨의 루트비히-막시밀리안 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의 언어학자인 시소우 박사는 옛킨슨의 방법을 음운이 아니라 '중속질의 구조'와 같은 측면에 적용했다면 그 결과는 언어의 기원이 남서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또는 코카서스(Caucasus), 또는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정보가 가장 다양하고 아프리카에서 멀수록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근거로 어떤 유전학자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을 공부했던 옛킨슨은 언어연구에 유전학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0-20만년의 연대나 유전정보의 다양성은 미토콘드리아의 돌연변이 속도에 좌우되는데 최근 돌연변이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 발견되어 인류의 역사가 불과 6000년으로 계산되었다(Science 2 January 1998: Vol. 279 no. 5347 pp. 28-29).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지만, 사람들이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배제하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구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

### 2. 어떻게 언어가 시작되었을까?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창조론자가 되거나 진화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직 하루도 되지 않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창2:23)고 시를 읊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말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다. 이 기록은 단 한 번도 말을 만들어보지 못한 인류가 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하다. 인류는 말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정한 '새로운' 단어 한 개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새로운 단어를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이미 있던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언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창조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 3. 바벨탑 사건-언어, 나라와 민족, 인종의 기원, 그리고 빙하시대의 원인

하나님께서서는 바벨탑 반역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새로운 말들을 디자인하여 각 가족들(after their

## 언어는 창조 때부터 인간만 가능. 단어 하나도 만들 수 없어 현재 6900사용언어 90어족으로 묶어... 바벨탑 사건과 일치



바벨탑 사건, 언어만 바뀐 사건인가? 나라와 민족, 인종의 기원, 빙하시대의 원인,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린 원인이었다!

물론 진화론적인 설명을 해야 현재의 언어학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화가 덜 되었다고 생각되는 동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침팬지의 목의 기관이 사람과 같아도 침팬지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호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초기에는 원시적인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다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목의 구조뿐 아니라 두뇌의 기능이 필수적임을 과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문법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 컴퓨터(두뇌)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강력한 소원을 가져도, 이 컴

families)에게 주셨다(창10-11장). 그러나 그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언어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어요소들을 뒤섞어 서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게 하셨다.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뿐 아니라 단어의 음소들까지도 뒤섞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은 거의 반대로 되어있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발견된다(예, 도로 - Road; 히브리어로는 - 데릭).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약 6900가지인데 언어학자들은 90개의 어족으로 까지만 묶을 수 있을 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한 인류가 4200여년 전 바벨탑 사건을 통해 혼합잡종 된 말을 갖게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메일: maiforwschoi@gmail.com

# 성공칼럼



**이영숙 박사**  
(종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갈 큰 힘 '정직'

얼마 전 부모성품훈계학교를 진행하다가 수강생들에게 "만약 내 아이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와서 놓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들은 골똘히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겠다."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 놀이가 끝난 다음 잘 이야기 하겠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은 안되는 거란다"라고 말하겠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심 놀랐습니다. 실용주의와 편리주의가 자녀양육의 현장에도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이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윤리풍조가 자녀양육현장에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 눈앞에서 만난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시(남과판(南瓜煎))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성균관 유생이었던 다산은 장마로 인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열흘 만에 집에 도착해보니, 어린 여중이 부인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었습니다. 단호한 부인의 모습에 다산은 영문을 몰라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먹이 없어서 굶주림이 심해져서, 어린 여중이 안주인과 찌꺼기 야기를 먹이려고 이웃집 호박을 몰래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여중은 주인마님에게 충성하려고 호박을 훔쳐 죽을 뻔하였지만 오히려 여중을 엄하게 꾸짖으며 종아리를 쳤습니다.

회초리를 들어 올은 일을 가르친 다산 부인의 도덕성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줍니다. 분별력(Conscience)이란 어렸을 때부터 양심에 기초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의 덕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보지 않아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직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종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no)" 맞는 것은 "네, 맞아요(yes)"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리더가 됩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일상 생활에서 보여주는 정직의 단편들을 통해 자녀는 옳고 그름을 배우고,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정직이 혼란해지는 시대에 '미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직'이라고 크게 말해주는 부모가 됩시다. 부모의 모델링을 통하여 정직을 귀한 가치로 여기는 좋은 성품의 자녀가 양육됩니다.

## 가정사역 칼럼

(7면에서 계속)

또한 스킨케어 아이의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규칙적으로 쓰다듬고 부드럽게 만져주면 몸무게가 다른 아기들보다 75%나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의 30%를 점여 주고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인의 지능지수는 평균 106으로 나라별로 보면 세계 최고이고 이스라엘은 평균 94로서 세계 45위이다. 앤드류 셔터는 '유대인의 두뇌와 노동 능력의 탁월

함은 유전자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가보다 머리가 좋아지도록 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은 임신과 태교를 회당에서 랍비들을 통해 교육받는다. 실은 임신부의 남편보다 랍비들이 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임

신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예비부모는 보건소의 면밀한 지시에 따라 반복하여 태교, 출산, 수유 등의 교육을 받으며 안정된 애착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제 한국교회나 사회에서도 갖 결혼한 커플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밝고 건강한 어린 꿈나무들을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맨토 커플이나 연륜이 있으면 신혼부부나 관사님들을 훈련하여 신혼부부가 정과 연결한다든지, 독서모임을 통한 지원체계를 갖춰서 정규적으로 태교, 임신 출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에 있는 신혼부부들 특히 가족이나 부모

들과 떨어져 있는 유학생 부부, 새내기 부부들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나이는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딤후2:4).

# 모나리자 스킨케어

년말연시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del>\$40</del>	\$35	10회	<del>\$350</del>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del>\$50</del>	\$40	10회	<del>\$400</del>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del>\$40</del>	\$35	10회	<del>\$350</del>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del>\$50</del>	\$40	10회	<del>\$400</del>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del>\$40</del>	\$35	10회	<del>\$350</del>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del>\$200</del>	\$150	10회	<del>\$1500</del>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del>\$250</del>	\$200	10회	<del>\$2000</del>	\$1800	1회	FREE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

# “이 땅을 치유하소서” 열방회복 기도

## 제 6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글로벌 다민족제 선교본부(GIM, 대표: 정윤명 목사)가 주최한 제 6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지난 27일 오후 6시 20여 다민족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호세에 위치한 Central Christian Church(담임 Roger Edrington 목사)에서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30여 목회자와 중보기도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이 땅을 치유하소서”(대하7:14)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6회 컨퍼런스는 Kevin McCauley 목사의 사회로 대화장 정윤명 목사의 개회인사와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담임)의 개회기도 후 새누리침례교회(담임 손경일 목사) 연합성가대의 메시야 찬양이 있었다.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30여 목회자와 중보기도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이날 미국내 교회, 학교, 사회, 정부,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각성, 미국 캠퍼스 복음화 추구와 가정과 교회,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며,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의 창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사회의 회복을 위한 미국회복선언기도를 로저 그린 선교사(워윌리프 사우스베이지역)

의 기도인도로 합심기도 순서도 가졌다.

이번 올네이션스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는 미국 주류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이란, 라틴(멕시코, 파나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와 이스라엘(Messianic) 등 베이 지역 20개 민족이 참가한 가운데 미

국과 한국 이스라엘, 라티노, 인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각국의 당면한 기도 제목 요청과 회복을 위한 영성 발표가 있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박승진 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 선교담당)가 북한 지하 교인과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상황 등을 최근 일본TV방영 내용을 인용 발표했다.

특히 산호세온누리교회 어린이들의 부채춤이 있었으며 무마니아, 인도, 아프리카(시에라리온), 라티노, 미국의 발표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열방의 중보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위



ITS 한국어학부에서 열린 특별강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한국교회 현 상황 진단 및 방향모색’

#### ITS한국어학부특강 강사 정재영 박사

국제신학교(ITS 총장 멜룩스 박사) 한국어학부는 한국실천신학대학원 종교사회학 교수인 정재영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한국교회 현 상황 진단 및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특별강좌를 열었다.

하는 비율이 아주 낮을지라도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그는 “가나안성도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대부분이 매우 지적이고 부지런히 독서하고 고인이 많은 이들이었다. 현재 교회의 상태에 대한 실망이 대부분이다. 물론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 기성교회들이 부응해주지 못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현재 교회현실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자 바로미터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재영 박사는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 중 하나는 교인들이 교회 안과 세상에서 삶의 차이가 많아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자기역할만 제대로 수행해도 대단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교회에서 섬기고 돕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은 좋으나 섬기고 돕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단지 도움을 주고 섬겨줘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서이다. 많은 부분 섬김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게 된다”며 “교회 공동체는 주종관계가 아닌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많은 신자들이 갖는 오류는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 우월감을 내려놓고 서로간의 눈높이를 맞추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교회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박사는 “교회는 마치 정당의 전당대회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전당대회에서 결의된 것들은 바로 실천이 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왔다. 교회역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심어 주고 그것이 세상 밖에서 실천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GMAN인터넷방송은 주7일 동안

그는 소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성도’라고 표현하며 이 현상이 차차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조직발표 · 부서별 활성화 · 후원확대

#### 미동부국제기아대책 월례모임, 이사장 황영진 목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30일 2013년 첫 월례회를 갖고 신규 임원 및 조직발표 등 새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장으로 황영진 목사를 선임했다.

회의를 앞서 드린 예배는 전희수 부회장 사회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성경봉독 임병남 목사, 말씀 황영진 목사, 축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20장 35절을 본문으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예수님께서 명

하신 사명을 갖고 세워진 기관으로, 기독교의 목적인 영혼구원과 기독교 정신인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2013년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열매가 풍성한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 발표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진하 목사 △부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유상열 목사 △부서기: 김준남 목사 △회계: 권캐더린 목사 △부회계: 유순현 목사 △감사: 박성원 목사, 지인식 목사 △교문: 황동의 목사(전임회장), 황영진 목사(전임회장) △상임자문: 김인한 장로 △자문위원: 김수태 목사, 최창섭 목사, 배영란 권사 △법률자문: 정용일 변호사 △사업국장: 김영환 목사 △기획국장: 임병남 목사 △국내선교국장: 이종명 목사 △해외선교국장: 오태환 목사 △국제국장: 박마이크 목사 △협력국장: 장경태 목사 △홍보국장: 홍명철 목사 △간사: 이찬양 전도사.

세금공제 혜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 기구는 2013년에는 후원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을 결의하고 신임 임원회 기금 △부서별 활성화 △후원지역 확대 △지역사회선교 등을 새 목표로 세웠다.

세 이찬양 간사의 2주동안 걸친 페루 현지방문, 올 여름 리마 단기선교, 한국 본부와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월례모임을 갖는다. (유원정 기자)

심덴스가 있었다.

특히 Almazs Teshome(에티오피아 복음전도자) 박사의 열방의 회복이슈발표에서 최근 이란 목사들의 구속과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전하면서 이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축복을 찾게 하라고 전했다.

이어 타이완 중국, 에티오피아, 일본, 파키스탄국가들의 기도요청과 영상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후, Leon Harper 캠퍼스선교사가 미국 학생을 포함한 베트남, 러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을 보살핌과 함께 민족교회들의 관심과 기도후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20여 다민족 목회자와 중보기도 대표자 30여명이 강단으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미국과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합심연합중보기도를 드린 후 올네이션스연합찬양단의 ‘나같은 죄인들’ 함께 찬양하며 내년에는 노스 베이지역의 Tiburon Baptist(담임 John Shouse 목사)에서 만날 것을 다짐했다.

대화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리치 아이엘교회 담임)는 5월 제 6회 이스트 베이 지역의 Global Multi-cultural Concert(5월)와 제 9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9월)에 여러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재 부흥과 열방의 회복에 동참할 것을 전하며 한인 커뮤니티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GMAN 인터넷방송국 개국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GMAN 인터넷방송국 개국예배

####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의 방송’

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GMAN, 대표 김정환 선교사)은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고 지난달 29일 개국감사예배를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에서 드렸다.

24시간 방송되며 총 다섯 개의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된다. 한편 GMAN방송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행정 및 자료정리 자원봉사자, 그리고 정기후원자를 찾고 있다. (박준호 기자)

박재용 목사의 찬양인도와 김정환 선교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개국감사예배는 김정호 목사 기도, 조효성 목사 특송, 김민숙 권사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김정환 선교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하나님 기사 역사는 한 소년의 드러짐으로 인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간접체험하고 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였다”라고 설명하고 “한사람이 자기 생명을 던져드릴 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선교의 원리이고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배승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에서 노만라이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 탈북신학교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가족의 중요성 강조

탈북신학교가 주최한 제 3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목회자와 선교사들, 상담분야에 종사자들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과 19일 양일간 교내 비즈니스빌딩에서 진행됐다.

강사로 선 노만라이트 박사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우울증, 중독, 의도’ 등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노만라이트 박사는

### 투고칼럼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 인간 최고의 지혜는 무지의 자각

‘지와 덕이 하나로 뭉쳐질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기원전469-399)를 소개한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지식은 시각을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몰락되어가고 인간 처세술의 진보는 철학의 정도가 왜곡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질만능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왜곡시키고 출세욕은 양심도 도덕도 망각하고 그릇된 자기과신에 도취되어 착각 속에 빠져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무지가 팽배해가는 세태를 보면서 공수거 인생길, 무성한 여정 속에 초로 같은 생명들이 어이 그리도 무심하다 할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유복한 가정서 출생한 이후 그의 관하여 확실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지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인간 최고의 지혜는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인간 정신의 중요함을 가르쳤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안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지혜를 사랑 한다는 것에 이르게 하였고, 이것을 ‘철학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서 유래한다.

소크라테스의 강론에 따르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나라의 일부 권력과 학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감옥에 갇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권유하였으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사상과 모습은 아리스토텔레스(348-322), 플라톤(429-347)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론’, ‘향연’ 등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의 사상은 특히 플라톤의 관념주의로 피어나게 됨으로서 그 후 서양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무지의 자각을 호소하기 위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였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알면서 모르는 체하는 것도 무지요, 지식의 정도는 겸손이고 언행일치하는 삶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인동포들도 뜬세상 부귀영화에 양심 빼가지 말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진선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말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양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1:24).

주제를 다뤘다. 벤 신 교수는 “가족의 성경적 우선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목회자는 자녀와 시간 보내기 등 가족의 실제적 우선순위의 실천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방법으로 △교회 지체 훈련과 위임 △휴식을 통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가족 포함)을 제시했다.

본교 목회상담학교수인 서니송 박사는 “정서장애로 인한 영적 질병”을 다루고 ‘동반의존’을 강의하며 ‘동반의존의 회복은 절제를 통해 가능하며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을세우는사람들(대표:금병달)에서는 독서치료를 소개하며 관련 서적들을 전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강생 전원에게는 탈북신학교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이 주어졌다. 주최 측은 내년 1월에 ‘제 4회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료가 필요한 이들은 (714)287-2458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KCCD는 인터넷과 컴퓨터교실 졸업식을 갖고 졸업생과 순서말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KCCD컴퓨터수업 15명 졸업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는 신규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자 창출을 위한 무료컴퓨터 강습 졸업식을 지난날 31일 오후3시 KCCD사무실에서 갖고 총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임혜빈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졸업식은 에벌린 메터모스, 조안주 강사 소개가 있었다. 이날 임혜빈 회장은 “통신자단이란 단어가 있다.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만 모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주류사회에서 인터넷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지만 아시아 커뮤니티엔 이런 것들이 약하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잘 마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레리 오르테가(커뮤니티유니온 대표)와 손영숙, 이 문, 김재숙 등 졸업생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KCCD는 2013년도 상반기 2월 3일부터 커뮤니티를 위한 인터넷과 컴퓨터교실을 시작했다. 컴퓨터교실에 대한 문의는 (213)985-150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부설 한국학교가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2월 9일(토) 개학부터 5월 25일까지 대상은 4세에서 12학년, 대학생(성인반). 교육과정은 유아반(기초한국어/동요/미술), 유치반(기초한국어/동요/공작), 초급반(단계별한국어/글짓기), 중급반(단계별한국어/한영번역/글짓기/의성어/의태어), 고급반(고급한국어/신문반), 기초반(기초한국어), 예능교실(음악/미술/발레/종이접기/태권도/각종악기) 등이다. 수업료는 70달러(교재비 및 예능교실은 별도).

▲문의: (718)886-4646

## 이영훈 테너의 찬양과 간증집회

테너 이영훈 집사의 '2013 새봄을 여는 찬양과 간증 집회'가 2월 24일(주) 오후 2시30분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18)706-0100

## 박은경 한국화개인지전

박은경 한국화개인지전이 14일(목)부터 27일(수)까지 2주 동안 맨해튼 COOHAUS 갤러리(547 west 27th st #307)에서 열린다. Color from Black(검으로부터의 색)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은 14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문의: (201)390-3669

## 제7기 "무료성악교실" 개강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 문화학교에서 제7기 "무료 성악교실"을 개강한다. 2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8시부터 9시30분까지 4주 과정으로 선착순 10명. 과정은 발성법, 공명법, 호흡법 등 성악이론과 개인별 레슨, 유명 성악가들의 영상교육도 있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며 찬양대원, 합창단원, 목회자, 찬양사역자와 성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문의: (718)357-3355, (917)593-9346



씨존 컴퓨터교실

## 제24기 목회와 선교위한 컴퓨터 무료강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과 씨존(C-Zone)이 공동주관한 제24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가 지난 24일부터 개강했다.

프라이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8층에 위치한 미주기독교방송국 회의실에서 열린 강의에서 강사 문석진 목사(씨존 대표)는 이메일 활용법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메일 분류법, 레이블 활용법, 참조와 비참조(CC/BCC)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석진 목사는 "수강생들이 완전 초보자부터 중급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첫 날의 수업분위기는 진지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질문이 나오는 등 전체적인 강의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았다"고 말했다.

선착순 12명을 넘는 17명이 등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제24기 컴퓨터강좌는 3월 14일(목)까지 계속되며 인터넷 검색, 아래한글로 기초문서 작성하기, 기초엑셀로 양식만들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 스마트폰 활용법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컴퓨터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80달러, 8회 개근자에게는 전액 환불한다. 등록과 접수는 전화 (718)463-17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

## 뉴욕교협 기자회견, 장소는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서울영안교회 담임)로 확정됐다. 장소는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회장 김중훈 목사는 지난 5일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방문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이번 제34회 할렐루아대회 강사로 양병희 목사를 초청한 이유로 "첫째, 양 목사는 영안교회를 33년전 개척해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한 교회를 섬겨오며 재적인원 2만5천명에 이르는 교회로 부흥시켰으며 3천5백여 제자들을 훌륭하게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장, 예장백성 총회장 등을 연임하면서 연합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왔으며 뉴욕지역 집회를 많이 함으로써 이민목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큰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회 후 있을 목회자세미나



할렐루아대회 일정을 발표한 교협임원들. 왼쪽부터 장경혜 서기, 이대연 평신도 부회장, 김중훈 회장, 현영갑 총무

나에서는 영안교회 제직훈련 교재를 사용해 강의함으로써 회원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김 목사는 말했다.

김중훈 목사는 콜든센터에 대해서도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불신자들도 쉽게 올 수 있는 장소"라고 소개하고 "제정적인 면은 교회보다 2

배 정도 더 소요되겠지만 기도하고 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양병희 목사 (할렐루아대회 강사)

확실했다.

김 목사는 "할렐루아대회는 뉴욕교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불신자 전도기회도 되고 교회도 은혜받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일정은 7월 12일(금)-14일(주), 15일(월) 목회자세미나로 결정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순서말은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네는 설교한 장영춘 목사.

## "사도행전 교회를 본 받으라!"

###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이 지난 3일 본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집사안수 엄갑룡 정민호 정철호 김영진 △집사취임 조철현 △집사취임 조영애 강정숙 씨 등이 임직했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영삼 목사, 설교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특송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장단, 봉헌기도 허상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행6:1-7)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도행전

적 교회는 첫째 말씀중만, 둘째 기도중만, 셋째 성령중만, 넷째 사랑중만, 다섯째 감사중만만 교회"라고 말하고 "새생명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직식은 임직자들의 서약에 이어 안수했으며 임직패를 증명했다. 권면은 문경환 목사(임직자에게) 이규본 목사(교우에게), 축사는 김남수 목사(KAPC총회장), 조문선 목사의 축도 후, 만찬기도 이종원 목사가 했다.

이날 교회는 10년 근속한 허윤준 담임목사에게 근속패를 증명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제36회 동부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장에 황영송 목사

### 제36회 지방회, 부회장 최형락 목사 선임

미주성결교회 제36회 동부지방회(회장 이정찬 목사)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계획예배는 황영송 부회장의 인도로 기도 차영운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권오철 목사(부서기), 설교 이정찬 목사, 합심기도, 성찬예식(집례 황하균 목사), 봉헌기도 박도술 목사, 광고 최형락 목사(서기), 축도 윤종훈 목사(전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찬 목사는 "베드로의 고백"(요21:15-1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내용"이라며 "첫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믿는 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둘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이웃사랑으로 연결돼 영적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 셋째, 깨어짐이 있어 자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 임원을 선출했다.

△지방회장 황영송 목사 △부회장 최형락 목사 △부서기 박도술 목

사 △회계 박찬일 장로.

신임회장 황영송 목사는 "겸손히 섬기겠다"며, "특히 EM권 육성과 개척 장려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부지방회는 뉴욕감찰회에 뉴욕한빛교회(윤종훈 목사), 롱아일랜드교회(김석형 목사), 퀸즈교회(조승수 목사),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목사), 뉴욕벨렐교회(정기섭 목사), 예수증인교회(김동식 목사), 롱아일랜드능력교회(김천표 목사), 뉴욕소망교회(황하균 목사), 아가페교회(김철수 목사), 롱아일랜드성령교회(김태근 목사), 주남은교회(조인상 목사), 은혜교회(박영표 목사), 케네디타운교회(이규연 목사), 새인약교회(권오철 목사) 등 14개 교회, 보스톤감찰회 보스톤중앙교회(송평구 목사), 보스톤사랑의교회(최형락 목사), 보스톤교회(이정찬 목사), 보스톤소망교회(전석훈 목사), 보스톤제일교회(장영규 목사), 보스톤주님의교회(박찬순 목사), 보스톤필그림교회(박도술 목사) 등 8개 교회로 총 22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감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탁니엘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하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원음에 가까운 연주  
본체 고음질 스피커  
USB 호스트 기능  
SD카드 사용  
터치스크린 방식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판대성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플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연구회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장남종업체 선정  
이동시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손잡이(17磅당 1톤) 신인형의 유망처리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 ANC은누리교회 창조과학세미나 성황 주제 '성경과 동성애', 강사 이재만 선교사

ANC은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성경과 동성애'라는 주제로 3일 오후 2시 본교회 교육관에서 '창조과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 이재만 선교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은 게이우전자를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게이우전자라는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 또한 자웅동체 혹은 염색체 상으로 남성염색체인 XY염색체를 가진 자 중에서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진 자가 있으며 여성염색체인 XX염색체를 가진 자 중에서 남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진 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ANC은누리교회에서 열린 창조과학세미나에서 이재만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동성애자들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동성애자역시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

기에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양성애자이다. 남자동성애자중 43%가 500명이상, 28%가 1000명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동성애를 성적타락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결혼의 결과중 하나는 성적 질병에 걸리는 자들이 평균치의 22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재만 선교사는 "2012년에 캘리포니아에 발효된 SB48법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동성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960년대 미국에 진화론이 교과서에 삽입이 됐다. 그때 교회에서 진화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게 됐다. 오늘날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가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만 선교사는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할지 답을 원한다. 기회로 삼아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동성애는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라 말한 뒤 "다음세대 희망을 전수하는 건 이 시대 동성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라크라센터 뉴송교회에서 '바울과 텐트 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라크라센터 지역 목회자 모임 세미나에서 박성민 APU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라크라센터 지역 목회자 모임 세미나 박성민 APU부총장 강사로 '바울과 텐트목회' 주제

라크라센터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 모임이 주최한 세미나 박성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부총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바울과 텐트 목회'라는 주제로 4일 오전 10시 라크라센터 뉴송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성민 교수는 "라크라센터 지역의 많은 교회가 목회상황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임박한 목회를 찾게 되는데 패러다임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고 "목회자로 부를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 있는 것이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소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다. 목사로 소명 받은 자는 그 대상이 성도들이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었다. 만약 기도가 부족했다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주지역의 교회의 92%가 목회자 사별을 할 수 없는 미자립교회이다. 한국은 65%"라고 밝힌 뒤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에 전념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목회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신학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울은 목회자였으며 전도자였다. 그리고 바울은 양을 치는 자였다. 바울은 가마리엘의 문하생이었고 랍비였다.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자였다. 바울은 100% 풀타임으로 목회했으며 100%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설명하며 "일을 하는 것은 복음전도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 말했다.

그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는 나의 안 좋은 부분과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비교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열등감이다. 반면 나의 좋은 부분과 타인의 안 좋은 부분을 비교하게 되면 나오는 건 우월감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주의를 요정하며 소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목자교회 설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미주목자교회 설립예배 은퇴목사, 선교사, 전도사, 무임사역자 위한

은퇴목사, 선교사, 전도사, 무임사역자를 위한 미주목자교회 설립예배가 3일 오후 3시 은혜성리교회(담임 김철수 목사)에서 열렸다.

은혜성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길소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OC교회 이사장)의 기도와, 이길소 선교사의 LAIMA 미션 선교보고,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로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오위영 목사(LA은혜교회)가 특송했다.

이러 박천일 목사(CTS TV목자교회, 오픈목자교회 담임)가 '세월을 아가라'(엡5:15-17)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천일 목사는 "미주목자교회 설립은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은퇴목사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일이다.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다. 제2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최선

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월을 아간다는 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아껴야 한다. 인생의 성공실패는 시간활용에 따라 결정된다. 남은 인생이 더욱 복된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레제스 목사(IGJC총회장),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자회), 변영의 목사(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대표회장), 박효우 목사(RCA 한인총회)가 격려사를 최학규 목사(남가주교회 겸경회), 박기호 목사(풀러신학대학원장), 송규식 목사(OC교회 부회장), 서영석 장로(라크라센터 지역의원)가 축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최낙일 목사(예장개혁 총회장)의 축사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회계 게시판

### "알콩달콩 사랑 만들기"

'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새내기 부부들을 위한 클래스를 오픈한다. '커플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화의 기술', '육아를 위한 애착의 기술' 등의 내용을 골자로 14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금요일 금정진 목사부부 외 준비된 멘토들을 중심으로 열린다. 장소는 커널데크(3321 W Lincoln Ave, Anaheim)이며 참석하는 커플들을 개별적으로 돕기 위한 멘토들이 준비됐고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임신, 태교, 모유수유, 애착의 기술, 커플관계 증진의 기술 등을 다룬다. 참가비는 30달러이고 저녁식사 및 교재가 제공된다.

▲문의: (714)287-2458

### '선교적 교회' 세미나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원장 박기호 교수)에서는 22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23일(토) 오후 5시까지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Payton 101호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ry Church)"라는 주제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온라인(40달러)에서 할 수 있으며 당일 등록(50달러)도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www.ewcmrd.org/seminar에서 볼 수 있다.

▲문의: (626)808-2829, (626)257-0908

### 부활절 준비 교사 워크숍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주일학교 찬양리더와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한 워크숍 중심의 강습회를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전도협회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회비는 50달러이며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www.cefkoc.com

▲문의: (213)382-1544

### 은혜실업인선교회 세금보고 세미나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이동양 장로)는 인컴택스에 관한 세미나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강의 등 전반적인 세법과 2013년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소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이며 참가비는 무료.

▲문의: (951)533-1197, (213)713-2001



제 1기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했다.

## 아기사랑 요계벳 1기 성료

'아기사랑 요계벳'(대표 이경숙 사모) 2기 개강이 오는 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8주간동안 진행된다. 지난해 말 제 1기 수강을 은혜가운데 마친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아기를 어떻게 잘 키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으며 조부모만인 요계벳 졸업생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흘리며 손주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자신의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또한 교사반 수강생들은 "어린 이를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통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아기사랑 요계벳'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잘 키운 어머니 요계벳을 롤 모델로 삼아 자녀를 주신 목적과 부모와 아이의 의사소통이나 감정 교류, 그들의 언어 이해 등을 다룬다. 수강 신청은 무료이며 오프라인 카운터 모닝그레이스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것은 akisarangio@gmail.com

이나 (714)766-9274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 2012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종합보고

<p><b>2012년 사랑의 쌀 배부처 총 20개</b></p> <p>사랑의 쌀 나눠 나눔 잔치 총 2,000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월 18일 (주) 나성영교회 (박희민목사) 오후 1시 500포</li> <li>12월2-3일 (주,월)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저녁 9시-10시 1,500포</li> </ol> <p><b>직접 찾아간 단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마이애미 지역 (이우호 목사) - 히스패닉 스티커 400포</li> <li>17. 애리조나 투슨 지역 (송병화 회장) 100포</li> <li>18. 밀알선교단 (이영선단장) 150포</li> <li>19. 해피밸리지 (김창호 국장) 100포</li> <li>20. 아가배움터 (이강원 목사) 13포</li> </ol>	<p><b>사랑의 쌀 나눔 2차 배부 12월 22(토) 총 2,850 (9팔렛)</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12월 22일 (토) LA총영사관 (신영선 LA총영사) 오전 11시-오후 1시 750포</li> <li>4. 미주평안교회 (송정영 목사) : 발리모 2가 지역 450포</li> <li>5. 나성순복음교회 (한유철 목사) : 월라와라 북쪽 지역 600포</li> <li>6. 나성순복음교회 (한기영 목사) : 나렌타이더 지역 450포</li> <li>7. 예브레리교회 (최홍주 목사) : 발리모 지역 450포</li> </ol>	<p><b>사랑의 쌀 나눔 3차 배부(12월 29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총 3,800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남가주사망교회 (노창수 목사) : 오리엔트타운 지역 900포 (6팔렛) 960포</li> <li>9. LA총교평화협의회 (김요한 신부) : 풀러, 팔름코, 천주교 300포</li> <li>10. ANC은누리교회 (유진소 목사) : 발리, 라크라센터 지역 600포</li> <li>11. 주님세움교회 (박성규 목사) 가디너, 토렌스지역 450포</li> <li>12. 중헌선교회 (민홍기 목사) 글렌데일, 버뱅크 지역 600포</li> <li>13. 벨리엔탈교회 (류재덕 목사) : 발리, 반후라카운티, 베이커스필드 300포</li> <li>14. LA한인교회 (배영환 회장) : 코로이타운 지역 300포</li> <li>15.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 파서디나, 아케디아 지역 300포</li> </ol>																																																																																																																																																																																																																																																																																											
<p><b>2012년 사랑의 쌀 후원내역 (\$105,645.00)</b></p> <p><b>개인</b></p> <table border="1"> <tr><td>Dae Y Park</td><td>30,000</td></tr> <tr><td>Kimo Chung</td><td>80,000</td></tr> <tr><td>Dae Young Kim</td><td>80,000</td></tr> <tr><td>Hak Sung Lee</td><td>10,000</td></tr> <tr><td>김우익</td><td>20,000</td></tr> <tr><td>황우산</td><td>300,000</td></tr> <tr><td>John Jyungnam Ahn</td><td>50,000</td></tr> <tr><td>Kyung Hee Chung</td><td>100,000</td></tr> <tr><td>Kim Young Ho</td><td>50,000</td></tr> <tr><td>Sun Hoi Kim</td><td>1,000,000</td></tr> <tr><td>Kyu Joon Ahn</td><td>200,000</td></tr> <tr><td>Chong Soon Kang</td><td>100,000</td></tr> <tr><td>김나선기</td><td>2,500,000</td></tr> <tr><td>주장교회</td><td>320,000</td></tr> <tr><td>나성영교회 (박희민목사)</td><td>5,000,000</td></tr> <tr><td>나성순교회 (한기영목사)</td><td>3,000,000</td></tr> <tr><td>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td><td>20,000,000</td></tr> <tr><td>주영교회 (김신목사)</td><td>160,000</td></tr> <tr><td>나성한교회 (전병주목사)</td><td>500,000</td></tr> <tr><td>주님세움교회 (박성규목사)</td><td>3,000,000</td></tr> <tr><td>앤디스프링교회 (전영진목사)</td><td>50,000</td></tr> <tr><td>인앤드서머나한인교회 (최영리목사)</td><td>20,000</td></tr> <tr><td>안디몽교회 (지윤성목사)</td><td>500,000</td></tr> <tr><td>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목사)</td><td>5,000,000</td></tr> <tr><td>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황규영목사)</td><td>100,000</td></tr> <tr><td>프리몬트 제임장로교회 (주정인목사)</td><td>200,000</td></tr> <tr><td>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td><td>3,000,000</td></tr> <tr><td>미주평안교회 (송정영목사)</td><td>2,000,000</td></tr> <tr><td>은누리교회 (이성현목사)</td><td>50,000</td></tr> <tr><td>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목사)</td><td>1,000,000</td></tr> <tr><td>나침반교회 (김경명목사)</td><td>1,000,000</td></tr> <tr><td>은혜한인교회 (한기홍목사)</td><td>2,000,000</td></tr> <tr><td>은혜한인교회 (노창수목사)</td><td>3,000,000</td></tr> <tr><td>ANC은누리교회 (유진소목사)</td><td>5,000,000</td></tr> <tr><td>나성한인교회 (김성민목사)</td><td>300,000</td></tr> <tr><td>새생명비전교회2차 (강준민목사)</td><td>1,000,000</td></tr> </table> <p><b>선교단체</b></p> <table border="1"> <tr><td>나성영합림교회 (김세환목사)</td><td>500,000</td></tr> <tr><td>나성복음교회 (유영기목사)</td><td>1,000,000</td></tr> <tr><td>중헌선교회 (민홍기목사)</td><td>5,000,000</td></tr> <tr><td>남가주총교회 (송병렬목사)</td><td>2,000,000</td></tr> <tr><td>우림</td><td>100,000</td></tr> <tr><td>한미장로교회 (이운영목사)</td><td>300,000</td></tr> <tr><td>드림교회 (이성현목사)</td><td>2,000,000</td></tr> <tr><td>백리연합교회 (류재덕목사)</td><td>2,000,000</td></tr> <tr><td>새생명선교회 (박희민목사)</td><td>1,000,000</td></tr> <tr><td>AIM Ministry (테드황선교사)</td><td>100,000</td></tr> <tr><td>LA기독윤리선전동</td><td>300,000</td></tr> <tr><td>소중하나들 (김수철목사)</td><td>100,000</td></tr> <tr><td>미아메리칸교회(한유철 목사)</td><td>3,200,000</td></tr> <tr><td>반후라카운티교회협의회 (최상훈목사)</td><td>1,200,000</td></tr> <tr><td>삼물여성회</td><td>300,000</td></tr> <tr><td>LA한인회 (배우한회장)</td><td>3,000,000</td></tr> <tr><td>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OC</td><td>500,000</td></tr> <tr><td>SPWM (강창근회장)</td><td>1,000,000</td></tr> <tr><td>남가주총교회 동문회</td><td>500,000</td></tr> <tr><td>원세은영</td><td>1,500,000</td></tr> <tr><td>Vicemless Enterprises, Inc</td><td>300,000</td></tr> <tr><td>LA총영사관 (신영선총영사)</td><td>1,000,000</td></tr> <tr><td>한미은행</td><td>1,000,000</td></tr> <tr><td>중부사민연맹 (홍길)</td><td>100,000</td></tr> <tr><td>Neo Blue (Sang Soo Chun)</td><td>3,000,000</td></tr> <tr><td>Propac Corp (Young G. Lee)</td><td>1,000,000</td></tr> <tr><td>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td><td>300,000</td></tr> <tr><td>브레아인구들</td><td>1,000,000</td></tr> <tr><td>가주부유사물리이협회</td><td>300,000</td></tr> <tr><td>LA 종교평화협의회 (성공회)</td><td>200,000</td></tr> <tr><td>LA 종교평화협의회 (불교)</td><td>100,000</td></tr> <tr><td>LA 종교평화협의회 (원불교)</td><td>200,000</td></tr> <tr><td>오렌지카운티 한인회</td><td>300,000</td></tr> <tr><td>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센터(에고협회)</td><td>300,000</td></tr> <tr><td>LA 평등</td><td>2,500,000</td></tr> <tr><td>Human Biostar, Inc 오갑차 156 Box</td><td>9,360,000</td></tr> </table>	Dae Y Park	30,000	Kimo Chung	80,000	Dae Young Kim	80,000	Hak Sung Lee	10,000	김우익	20,000	황우산	300,000	John Jyungnam Ahn	50,000	Kyung Hee Chung	100,000	Kim Young Ho	50,000	Sun Hoi Kim	1,000,000	Kyu Joon Ahn	200,000	Chong Soon Kang	100,000	김나선기	2,500,000	주장교회	320,000	나성영교회 (박희민목사)	5,000,000	나성순교회 (한기영목사)	3,000,000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	20,000,000	주영교회 (김신목사)	160,000	나성한교회 (전병주목사)	500,000	주님세움교회 (박성규목사)	3,000,000	앤디스프링교회 (전영진목사)	50,000	인앤드서머나한인교회 (최영리목사)	20,000	안디몽교회 (지윤성목사)	500,000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목사)	5,000,000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황규영목사)	100,000	프리몬트 제임장로교회 (주정인목사)	200,000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	3,000,000	미주평안교회 (송정영목사)	2,000,000	은누리교회 (이성현목사)	50,000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목사)	1,000,000	나침반교회 (김경명목사)	1,000,000	은혜한인교회 (한기홍목사)	2,000,000	은혜한인교회 (노창수목사)	3,000,000	ANC은누리교회 (유진소목사)	5,000,000	나성한인교회 (김성민목사)	300,000	새생명비전교회2차 (강준민목사)	1,000,000	나성영합림교회 (김세환목사)	500,000	나성복음교회 (유영기목사)	1,000,000	중헌선교회 (민홍기목사)	5,000,000	남가주총교회 (송병렬목사)	2,000,000	우림	100,000	한미장로교회 (이운영목사)	300,000	드림교회 (이성현목사)	2,000,000	백리연합교회 (류재덕목사)	2,000,000	새생명선교회 (박희민목사)	1,000,000	AIM Ministry (테드황선교사)	100,000	LA기독윤리선전동	300,000	소중하나들 (김수철목사)	100,000	미아메리칸교회(한유철 목사)	3,200,000	반후라카운티교회협의회 (최상훈목사)	1,200,000	삼물여성회	300,000	LA한인회 (배우한회장)	3,000,000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OC	500,000	SPWM (강창근회장)	1,000,000	남가주총교회 동문회	500,000	원세은영	1,500,000	Vicemless Enterprises, Inc	300,000	LA총영사관 (신영선총영사)	1,000,000	한미은행	1,000,000	중부사민연맹 (홍길)	100,000	Neo Blue (Sang Soo Chun)	3,000,000	Propac Corp (Young G. Lee)	1,000,000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	300,000	브레아인구들	1,000,000	가주부유사물리이협회	300,000	LA 종교평화협의회 (성공회)	200,000	LA 종교평화협의회 (불교)	100,000	LA 종교평화협의회 (원불교)	200,000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300,000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센터(에고협회)	300,000	LA 평등	2,500,000	Human Biostar, Inc 오갑차 156 Box	9,360,000	<p><b>2012년 사랑의 쌀 나눔단체 (136개)</b></p> <table border="1"> <tr><td>김우희 (린다리)</td><td>신우철 (진우철 목사)</td><td>새로운지는 교회 (헬렌조 목사)</td><td>은혜와인교회 (최국현 목사)</td></tr> <tr><td>AIM Ministries (테드 황)</td><td>남가주사랑교회 (노창수 목사)</td><td>새출발선교회 (채혜영 목사)</td><td>의의나무사역 오명비어 (이진목사)</td></tr> <tr><td>ANC은누리교회 (유진소 목사)</td><td>남가주성교회 (고성근 목사)</td><td>세하늘교회</td><td>인앤드서머나교회 (최영리 목사)</td></tr> <tr><td>Centro Misionero Betesta 선교회 (스테판 황 선교사)</td><td>남가주성교회 (최경성 목사)</td><td>생령나무선교회 (안성진 목사)</td><td>장애우사랑교회 (장애인 선교회) 오진형목사</td></tr> <tr><td>Esther's Home (이병진)</td><td>남가주임마누엘교회 (박용덕 목사)</td><td>생명의전화 (박다윗 목사)</td><td>제이발복자지원회 (로버트 홀 변호사)</td></tr> <tr><td>Faith Heritage Mission (김영철 목사)</td><td>뉴라이프교회 (장규도 목사)</td><td>생수교회 (모나기 선교사)</td><td>제이한글어인문학회 (김교일 회장)</td></tr> <tr><td>Faith Theological Seminary (영방성 학장)</td><td>대명교회 (이성현 목사)</td><td>사탄교회 (박소용 목사)</td><td>제이한글어인문학회 (홍길 회장)</td></tr> <tr><td>GP선교회 (김승철 선교사)</td><td>드림교회 (이성현 목사)</td><td>삼물여성회 (박소용 목사)</td><td>조선총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Hopi Indian Mission (차성진 목사)</td><td>디아스포라선교회 (전영자 목사)</td><td>성찬선교회 (에나하임) (윤태근 목사)</td><td>조선총교회 (송윤길 목사)</td></tr> <tr><td>Jesus Love Mission (안사랑 목사)</td><td>로스앤젤레스 (송길호 목사)</td><td>성화선교회 (이종철 목사)</td><td>종은이웃 좋은친구 (김재호 선교사)</td></tr> <tr><td>Jesus Mexico (최재진 선교사)</td><td>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황규영 목사)</td><td>세계로비전교회</td><td>주님세움교회 (박성규 목사)</td></tr> <tr><td>Korean Evangelical Mission for Hispanic (황애영 선교사)</td><td>말씀153장로교회 (서희숙 목사)</td><td>센바나디노율리안선교회 (이용범 목사)</td><td>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td></tr> <tr><td>LA, 평안교회 (이성현 목사)</td><td>메시사선교회 (장환성 목사)</td><td>소중하나들 (김수철 목사)</td><td>주사랑선교회 (이재근 목사)</td></tr> <tr><td>LA, 생령교회 (이성현 목사)</td><td>메시사선교회 (장환성 목사)</td><td>소망교회 (이재근 목사)</td><td>주어수선교회 (양수영 목사)</td></tr> <tr><td>가리외교회 (장영안)</td><td>모순총교회 (이정규 목사)</td><td>시온성당교회 (이정규 목사)</td><td>주어수선교회 (USA 총 회장)</td></tr> <tr><td>LA총교평화협의회 (김요한 목사)</td><td>무지개가장교회 (이지혜)</td><td>시온교회 (박성준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Manna Mission (유리아)</td><td>몰몬종교인선교회 (최영진 전도사)</td><td>실로암교회 (Myagawa)</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Navajo Indian Mission (한명수 선교사)</td><td>미주 하느님교회 (최성민 목사)</td><td>시베리아교회 (유기범 전도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Radiant Hope Academy (박영식 목사)</td><td>미주한인교회 (한기영 목사)</td><td>아가배움터 (배영환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SAC (황 아베스)</td><td>미주한인교회 (송정영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The Church LA</td><td>민족교회 (홍대중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The Welcome Center (Rev. Mage) Jordan</td><td>민족교회 (홍대중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UCLA (크리스티나 칸)</td><td>민족교회 (홍대중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USC (박사석)</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USC선교회</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Vineyard KMC (Daniel Han 전도사)</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가리외교회 (장영안)</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김정진 대표)</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갈릴리교회 (김정진 목사)</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가리외교회 (장영안)</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가톨릭 (이안구 사제)</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골목교회 (안영숙 목사)</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r><td>나성영교회 (박희민 목사)</td><td>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td><td>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td><td>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td></tr> </table>	김우희 (린다리)	신우철 (진우철 목사)	새로운지는 교회 (헬렌조 목사)	은혜와인교회 (최국현 목사)	AIM Ministries (테드 황)	남가주사랑교회 (노창수 목사)	새출발선교회 (채혜영 목사)	의의나무사역 오명비어 (이진목사)	ANC은누리교회 (유진소 목사)	남가주성교회 (고성근 목사)	세하늘교회	인앤드서머나교회 (최영리 목사)	Centro Misionero Betesta 선교회 (스테판 황 선교사)	남가주성교회 (최경성 목사)	생령나무선교회 (안성진 목사)	장애우사랑교회 (장애인 선교회) 오진형목사	Esther's Home (이병진)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박용덕 목사)	생명의전화 (박다윗 목사)	제이발복자지원회 (로버트 홀 변호사)	Faith Heritage Mission (김영철 목사)	뉴라이프교회 (장규도 목사)	생수교회 (모나기 선교사)	제이한글어인문학회 (김교일 회장)	Faith Theological Seminary (영방성 학장)	대명교회 (이성현 목사)	사탄교회 (박소용 목사)	제이한글어인문학회 (홍길 회장)	GP선교회 (김승철 선교사)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	삼물여성회 (박소용 목사)	조선총교회 (배종민 목사)	Hopi Indian Mission (차성진 목사)	디아스포라선교회 (전영자 목사)	성찬선교회 (에나하임) (윤태근 목사)	조선총교회 (송윤길 목사)	Jesus Love Mission (안사랑 목사)	로스앤젤레스 (송길호 목사)	성화선교회 (이종철 목사)	종은이웃 좋은친구 (김재호 선교사)	Jesus Mexico (최재진 선교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황규영 목사)	세계로비전교회	주님세움교회 (박성규 목사)	Korean Evangelical Mission for Hispanic (황애영 선교사)	말씀153장로교회 (서희숙 목사)	센바나디노율리안선교회 (이용범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LA, 평안교회 (이성현 목사)	메시사선교회 (장환성 목사)	소중하나들 (김수철 목사)	주사랑선교회 (이재근 목사)	LA, 생령교회 (이성현 목사)	메시사선교회 (장환성 목사)	소망교회 (이재근 목사)	주어수선교회 (양수영 목사)	가리외교회 (장영안)	모순총교회 (이정규 목사)	시온성당교회 (이정규 목사)	주어수선교회 (USA 총 회장)	LA총교평화협의회 (김요한 목사)	무지개가장교회 (이지혜)	시온교회 (박성준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Manna Mission (유리아)	몰몬종교인선교회 (최영진 전도사)	실로암교회 (Myagawa)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Navajo Indian Mission (한명수 선교사)	미주 하느님교회 (최성민 목사)	시베리아교회 (유기범 전도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Radiant Hope Academy (박영식 목사)	미주한인교회 (한기영 목사)	아가배움터 (배영환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SAC (황 아베스)	미주한인교회 (송정영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The Church LA	민족교회 (홍대중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The Welcome Center (Rev. Mage) Jordan	민족교회 (홍대중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UCLA (크리스티나 칸)	민족교회 (홍대중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USC (박사석)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USC선교회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Vineyard KMC (Daniel Han 전도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리외교회 (장영안)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김정진 대표)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갈릴리교회 (김정진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리외교회 (장영안)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톨릭 (이안구 사제)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골목교회 (안영숙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나성영교회 (박희민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Dae Y Park	30,000																																																																																																																																																																																																																																																																																												
Kimo Chung	80,000																																																																																																																																																																																																																																																																																												
Dae Young Kim	80,000																																																																																																																																																																																																																																																																																												
Hak Sung Lee	10,000																																																																																																																																																																																																																																																																																												
김우익	20,000																																																																																																																																																																																																																																																																																												
황우산	300,000																																																																																																																																																																																																																																																																																												
John Jyungnam Ahn	50,000																																																																																																																																																																																																																																																																																												
Kyung Hee Chung	100,000																																																																																																																																																																																																																																																																																												
Kim Young Ho	50,000																																																																																																																																																																																																																																																																																												
Sun Hoi Kim	1,000,000																																																																																																																																																																																																																																																																																												
Kyu Joon Ahn	200,000																																																																																																																																																																																																																																																																																												
Chong Soon Kang	100,000																																																																																																																																																																																																																																																																																												
김나선기	2,500,000																																																																																																																																																																																																																																																																																												
주장교회	320,000																																																																																																																																																																																																																																																																																												
나성영교회 (박희민목사)	5,000,000																																																																																																																																																																																																																																																																																												
나성순교회 (한기영목사)	3,000,000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	20,000,000																																																																																																																																																																																																																																																																																												
주영교회 (김신목사)	160,000																																																																																																																																																																																																																																																																																												
나성한교회 (전병주목사)	500,000																																																																																																																																																																																																																																																																																												
주님세움교회 (박성규목사)	3,000,000																																																																																																																																																																																																																																																																																												
앤디스프링교회 (전영진목사)	50,000																																																																																																																																																																																																																																																																																												
인앤드서머나한인교회 (최영리목사)	20,000																																																																																																																																																																																																																																																																																												
안디몽교회 (지윤성목사)	500,000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목사)	5,000,000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황규영목사)	100,000																																																																																																																																																																																																																																																																																												
프리몬트 제임장로교회 (주정인목사)	200,000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	3,000,000																																																																																																																																																																																																																																																																																												
미주평안교회 (송정영목사)	2,000,000																																																																																																																																																																																																																																																																																												
은누리교회 (이성현목사)	50,000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목사)	1,000,000																																																																																																																																																																																																																																																																																												
나침반교회 (김경명목사)	1,000,000																																																																																																																																																																																																																																																																																												
은혜한인교회 (한기홍목사)	2,000,000																																																																																																																																																																																																																																																																																												
은혜한인교회 (노창수목사)	3,000,000																																																																																																																																																																																																																																																																																												
ANC은누리교회 (유진소목사)	5,000,000																																																																																																																																																																																																																																																																																												
나성한인교회 (김성민목사)	300,000																																																																																																																																																																																																																																																																																												
새생명비전교회2차 (강준민목사)	1,000,000																																																																																																																																																																																																																																																																																												
나성영합림교회 (김세환목사)	500,000																																																																																																																																																																																																																																																																																												
나성복음교회 (유영기목사)	1,000,000																																																																																																																																																																																																																																																																																												
중헌선교회 (민홍기목사)	5,000,000																																																																																																																																																																																																																																																																																												
남가주총교회 (송병렬목사)	2,000,000																																																																																																																																																																																																																																																																																												
우림	100,000																																																																																																																																																																																																																																																																																												
한미장로교회 (이운영목사)	300,000																																																																																																																																																																																																																																																																																												
드림교회 (이성현목사)	2,000,000																																																																																																																																																																																																																																																																																												
백리연합교회 (류재덕목사)	2,000,000																																																																																																																																																																																																																																																																																												
새생명선교회 (박희민목사)	1,000,000																																																																																																																																																																																																																																																																																												
AIM Ministry (테드황선교사)	100,000																																																																																																																																																																																																																																																																																												
LA기독윤리선전동	300,000																																																																																																																																																																																																																																																																																												
소중하나들 (김수철목사)	100,000																																																																																																																																																																																																																																																																																												
미아메리칸교회(한유철 목사)	3,200,000																																																																																																																																																																																																																																																																																												
반후라카운티교회협의회 (최상훈목사)	1,200,000																																																																																																																																																																																																																																																																																												
삼물여성회	300,000																																																																																																																																																																																																																																																																																												
LA한인회 (배우한회장)	3,000,000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OC	500,000																																																																																																																																																																																																																																																																																												
SPWM (강창근회장)	1,000,000																																																																																																																																																																																																																																																																																												
남가주총교회 동문회	500,000																																																																																																																																																																																																																																																																																												
원세은영	1,500,000																																																																																																																																																																																																																																																																																												
Vicemless Enterprises, Inc	300,000																																																																																																																																																																																																																																																																																												
LA총영사관 (신영선총영사)	1,000,000																																																																																																																																																																																																																																																																																												
한미은행	1,000,000																																																																																																																																																																																																																																																																																												
중부사민연맹 (홍길)	100,000																																																																																																																																																																																																																																																																																												
Neo Blue (Sang Soo Chun)	3,000,000																																																																																																																																																																																																																																																																																												
Propac Corp (Young G. Lee)	1,000,000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	300,000																																																																																																																																																																																																																																																																																												
브레아인구들	1,000,000																																																																																																																																																																																																																																																																																												
가주부유사물리이협회	300,000																																																																																																																																																																																																																																																																																												
LA 종교평화협의회 (성공회)	200,000																																																																																																																																																																																																																																																																																												
LA 종교평화협의회 (불교)	100,000																																																																																																																																																																																																																																																																																												
LA 종교평화협의회 (원불교)	200,000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300,000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센터(에고협회)	300,000																																																																																																																																																																																																																																																																																												
LA 평등	2,500,000																																																																																																																																																																																																																																																																																												
Human Biostar, Inc 오갑차 156 Box	9,360,000																																																																																																																																																																																																																																																																																												
김우희 (린다리)	신우철 (진우철 목사)	새로운지는 교회 (헬렌조 목사)	은혜와인교회 (최국현 목사)																																																																																																																																																																																																																																																																																										
AIM Ministries (테드 황)	남가주사랑교회 (노창수 목사)	새출발선교회 (채혜영 목사)	의의나무사역 오명비어 (이진목사)																																																																																																																																																																																																																																																																																										
ANC은누리교회 (유진소 목사)	남가주성교회 (고성근 목사)	세하늘교회	인앤드서머나교회 (최영리 목사)																																																																																																																																																																																																																																																																																										
Centro Misionero Betesta 선교회 (스테판 황 선교사)	남가주성교회 (최경성 목사)	생령나무선교회 (안성진 목사)	장애우사랑교회 (장애인 선교회) 오진형목사																																																																																																																																																																																																																																																																																										
Esther's Home (이병진)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박용덕 목사)	생명의전화 (박다윗 목사)	제이발복자지원회 (로버트 홀 변호사)																																																																																																																																																																																																																																																																																										
Faith Heritage Mission (김영철 목사)	뉴라이프교회 (장규도 목사)	생수교회 (모나기 선교사)	제이한글어인문학회 (김교일 회장)																																																																																																																																																																																																																																																																																										
Faith Theological Seminary (영방성 학장)	대명교회 (이성현 목사)	사탄교회 (박소용 목사)	제이한글어인문학회 (홍길 회장)																																																																																																																																																																																																																																																																																										
GP선교회 (김승철 선교사)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	삼물여성회 (박소용 목사)	조선총교회 (배종민 목사)																																																																																																																																																																																																																																																																																										
Hopi Indian Mission (차성진 목사)	디아스포라선교회 (전영자 목사)	성찬선교회 (에나하임) (윤태근 목사)	조선총교회 (송윤길 목사)																																																																																																																																																																																																																																																																																										
Jesus Love Mission (안사랑 목사)	로스앤젤레스 (송길호 목사)	성화선교회 (이종철 목사)	종은이웃 좋은친구 (김재호 선교사)																																																																																																																																																																																																																																																																																										
Jesus Mexico (최재진 선교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황규영 목사)	세계로비전교회	주님세움교회 (박성규 목사)																																																																																																																																																																																																																																																																																										
Korean Evangelical Mission for Hispanic (황애영 선교사)	말씀153장로교회 (서희숙 목사)	센바나디노율리안선교회 (이용범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LA, 평안교회 (이성현 목사)	메시사선교회 (장환성 목사)	소중하나들 (김수철 목사)	주사랑선교회 (이재근 목사)																																																																																																																																																																																																																																																																																										
LA, 생령교회 (이성현 목사)	메시사선교회 (장환성 목사)	소망교회 (이재근 목사)	주어수선교회 (양수영 목사)																																																																																																																																																																																																																																																																																										
가리외교회 (장영안)	모순총교회 (이정규 목사)	시온성당교회 (이정규 목사)	주어수선교회 (USA 총 회장)																																																																																																																																																																																																																																																																																										
LA총교평화협의회 (김요한 목사)	무지개가장교회 (이지혜)	시온교회 (박성준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Manna Mission (유리아)	몰몬종교인선교회 (최영진 전도사)	실로암교회 (Myagawa)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Navajo Indian Mission (한명수 선교사)	미주 하느님교회 (최성민 목사)	시베리아교회 (유기범 전도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Radiant Hope Academy (박영식 목사)	미주한인교회 (한기영 목사)	아가배움터 (배영환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SAC (황 아베스)	미주한인교회 (송정영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The Church LA	민족교회 (홍대중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The Welcome Center (Rev. Mage) Jordan	민족교회 (홍대중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UCLA (크리스티나 칸)	민족교회 (홍대중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USC (박사석)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USC선교회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Vineyard KMC (Daniel Han 전도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리외교회 (장영안)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김정진 대표)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갈릴리교회 (김정진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리외교회 (장영안)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가톨릭 (이안구 사제)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골목교회 (안영숙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나성영교회 (박희민 목사)	벨리대선교회 (송기성 목사)	에나메리안교회 (김에스터 목사)	주님세움교회 (배종민 목사)																																																																																																																																																																																																																																																																																										
<p>● <b>공동주최</b> : LA총영사관, 한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p> <p>● <b>주관 및 문의처</b> : 미주(LA)성서화운동본부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p> <p>● <b>전화</b> : 213-384-5232 / <b>홈페이지</b> : www.holycityusa.org, laholycity@yahoo.com</p>	<p><b>2012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참가는 분들</b></p> <p>명예대회장 박희민 목사    대표대회장 한기영 김도 / 공동대회장 진우철 목사 (남가주교회), 민영준 목사 (OC교회), 송정영 목사 (LA시화교회), 이운영 목사 (남가주목사회), 신영선 LA총영사, 한국일보, 중앙일보 / 상임부회장 이상우 목사 / 재정위원장 최동원 장로 / 모금위원장 박성규 목사 / 홍보위원장 육세정 장로 / 기금담당 전근석 영사    홍보대사 노영진 선교사 / 송우 양성준 목사, 송규식 목사 / 행정국장 김인화 선교사, 신기태 선교사</p>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개신교 인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조사와 비교하면 '구원·영생' 항목이 15% 포인트 하락한 대신 '건강·재물' 항목이 10% 포인트나 상승해

한 개신교인의 비율도 77.1%에서 63.2%로 13.9% 포인트나 떨어졌다.

전 성관계(51.3%), 외도(15.1%), 뇌물 제공(30.2%), 음주(72.5%), 흡연(62.3%) 등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거나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8년 전에 비해 5-15% 포인트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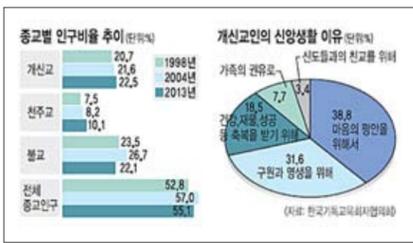
종교인구 감소에도 개신교 증가... '사회 영향력' 1위

소했다. 특히 20대는 종교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15% 포인트 가량 낮았다.

개신교 인구는 2004년 21.6%에서 지난해 22.5%로 0.9% 포인트 늘었다.

늘었다. 그러나 개인의 전도 경험과 성경묵상·기도 시간이 줄고 기독교 교리와 사회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등 신앙생활의 내용은 오히려 빈곤해졌다.

교회 출석률은 2004년 88.4%에서 지난해 89.5%로 1.1% 포인트 상승했다.



다. '제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24.5%에서 20.6%로 낮아졌지만 공함과 풍수지리, 윤회설을 긍정하는 비율은 모두 10% 포인트 이상씩 커졌다.

폴리이다. 비종교인들의 종교별 이미지 평가에서 개신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시대변화 적응력' 측면에서 천주교와 불교를 앞섰다.

한목협 '2012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서는 제주의 제외된 전국의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별 면접조사를 이뤄졌다.

찬성했다. 목회자들의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55.8%로 가장 많았다.

가장 뛰어난 설교가를 묻는 질문에 조용기 한경직 옥한흠 김삼환 목사 순으로 답했다.

목회자들 가운데 모태신앙의 비율은 51.2%였으며 1주일 평균 성경 열독시간은 8시간51분, 하루 평균 개인 기도시간은 2시간41분이었다.

명이었다. 목회자들은 가장 큰 고민으로 46%가 교회 성장의 어려움, 15.6%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교회 위기 최대 원인은 신앙실천 부족'

장 추구(27.6%), 목회자의 자질 부족(14.8%) 등을 꼽았다.

드러났다. 목회자들이 꼽은 대표적 연합 기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5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32.4%), 한국교회연합(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들은 조용기 한경직 장경동 하용호 박선희 옥한흠 목사 순으로 답했고, 목회자들은 옥한흠 한경직 조용기 김삼환 목사 순으로 꼽았다.

군 7.5회 설교를 했으며, 주일 낮 설교 준비에 4시간41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방성, 낡은 송신기교체 성금모금 생방송 북한성도, 중국돈 '500위안' 헌금 화제

최근 북한에서 물라 라디오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한 성도가 헌금과 신앙노트, 나무심자기를 보내온 것이 공개됐다.

지의 성도들이 라디오를 청취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북한의 한 성도는 이를 마음속에 담았다 중국돈 500위안(약 10만원, 1구좌)을 조

나"는 등 평소 라디오를 들으며 은혜 받은 것을 백백이 기록한 신앙노트 3권과 나무심자기가 2개도 함께 보냈다.

제주동방성 양육전도부 김정호 과장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심시 일만으로 낡은 송신기 교체를 위한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다"며 "특히 이번에 북한 성도가 보내온 헌금은 의미가 남다른 북한성도의 초석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WCC 공동선언문 없던 일로"

NCKK 김영주 총무 파기 선언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가 지난달 13일 서명하고 발표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파기했다.

김 총무는 대신 NCKK 총무로서 WCC총회 준비가 잘 되도록 협력하는 한편 보수 교계와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4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 파기와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파기' 원인과 진단

"보수-진보, 합의 문구 정략적 이용"

"한국 보수 교계와 에큐메니컬 진영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네바본부 관계자)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다.

A large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various denominations including Catholic, Protestant, and Baptist churches across different cities in the US and Canada. Each ad includes the church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 세계 종교문화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9.11사태 이후 이슬람 테러 현황

2013년 1월 25일자 WND는 “자칭 평화로운 종교가 자행한 놀라운 학살”이라는 부제로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이슬람 테러 현황에 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Guess how many Islamic terror attacks since 9/11”, Bob Unruh/WND 평론가).

“평화의 종교(The Religion of Peace)”라는 웹사이트에서는 2001년의 9.11사태 이후 발생한 2만 여건의 테러사건을 열거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슬람교의 지하드를 위한 테러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모두 2만 22명이다. 2만번째 희생자는 불과 며칠 전 이란에서 토막살인 당한 유대인 여성으로서, 그 범인은 “



모스크를 더욱 크게 확장하려는” 급진파 이슬람교도였다.

이슬람교도들은 매년 평균 약 1,800여건의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를 환산해보면 매달 150건, 매일 약 5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The Religion of Peace” 웹사이트는 이슬람교도들의 테러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열거하고 있으며 그 개설자는 글렌 로버츠(Glen Roberts)라고 되어있지만, 개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이 역시 가명이다.

그는 믿을만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이슬람교도들의 폭력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그는 WND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Religion of Peace.com(이하 TROP)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살해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해, 이슬람교의 경우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매년 1500 명씩 살해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슬람교만의 독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

TROP에 따르면 코란에 최소한 109절이 “이슬람교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이슬람교도들은 비이슬람교도들과 전쟁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는 코란의 가변적인 부분이 아니라 알라의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이슬람교의 핵심원칙에 해당하는데, 코란의 다른 주요구절들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요소이다.” 가령 코란에는 “민는 자들은 반드시 알라의 목적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적혀 있다.

TROP에 의하면 “마호메트는 그 추종자들에게 아주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 대가로 그는 전리품, 성적 쾌락, 그리고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천국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슬람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져나간다. 병든 이슬람국가의 세군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건강한 세군에 세군을 번식시킨다. 그리고 이슬람과 무관하게 풍요로웠던 나라들로 퍼져나가 그 국가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슬람은 일단 그 숙주에 자리 잡으면 세군과 같이 그 숙주의 기관을 이용해 자신의 복사체를 남긴다. 숙주는 시간이 흐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언젠가는 같이 들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은 채 그 세군을 먹여살리고 배양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기관이 세군에 감염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그 국가는 본래 이슬람교도들이 도망쳐 나왔던 그 본래 이슬람 국가와 같이 병든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 간증 · 이수일 박사가 보내온 편지

###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플러싱 거리 모퉁이 무궁화나무에 덥고 긴 여름이 다 가도록 예쁜 무궁화 꽃이 피고지고 또 지는 동안에도 내 아이는 집에 오질 못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바로 네 나라 한국의 꽃이란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내 아이는 집에 없다.

긴 여름동안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가느다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풀었다 하기를 반복하며, 학교에 있어야 할 내 아이는 그렇게 코트(court)와 소년센터(juvenile center)를 오갔다.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옆머리에 두 개, 뒷머리에 서너 개 정도의 원형탈모증으로 머리가 빠졌다.

이것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말에 친구 따라 하다가 중독이 되어 끊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마약을 파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다만 얼마라도 돈을 세이브(save)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마전 지하방을 얻어 이사했다. 아들이 없이 부부만 쓸쓸히 영영 울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울고 말며 보며 울었다.

새로 이사한 집 앞에 있는 시멘트 주차장 틈새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예뻐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나가보니 밤새 불어 닳진 비바람에 가느다란 허리가 푹 꺾여서 땅에 힘없이 꼬꾸러져 있다. 꼭 내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또 눈물을 꼭꼭 삼켰다.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내 영혼과 육신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남어지되 아주 옆드러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길

을 찾아 해했다. 그러다 만난 분이 이수일 박사님이시고 부모교실이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포기하기 잘하는 내게 이수일 박사님과 청소년센터 부모교실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셨다.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박사님께 순종하며 참석하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 웃음을 잃고 가슴속에 저만의 큰 성을 쌓고 좀처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려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들의 엄마, 청소년시절부터 시작되었을 마약중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른이 가깝도록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몰라서 뒤늦게 찾아온 엄마.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가슴속 깊이 꽂꽂혀 들어오던 얘기를 꺼내 놓았다. 해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다.

서로의 얘기를 함께 아파하며 들어주는 동안 그렇게도 무거웠던 나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동안 우리들의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디다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부모교실에서 함께 했던 엄마들의 격려와 기도가 없었다면 나 혼자 어떻게 감당했을까 새삼 고맙고 또 감사하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 안아줄 수 있다.

내 아이가 처음 방황을 하기 시작할 때,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교회 회의 때 내 아이 문제를 내어놓으며 요주의 인물이니 잘 살펴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받았다. 그 소리를 전해들은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찾아가 도움을 부탁한 내가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비뚤어진 아이들도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그 교사들은 몰랐던 것 같다.

지금도 나는 마약중독으로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내 아이 같은 청소년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듯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납니다. 도와줘야 한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우리 품에 품어줘야 한다.

죄없는 죄인이 되어 누가 알까 부끄러워 가슴을 꽂꽂여미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서로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기도해주며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아이도 살릴 수 있다.

나는 부모교실에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의 심령과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부모교실의 모임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부모교실에 나온 엄마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 나 잘못이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흐르는 눈물 속에 부모가 치유 받고, 자녀를 치유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한 우리 엄마 아빠들, 이수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예림(가명) 전도사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동부(NY, NJ)교회</b>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리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후 6:30(토)	<b>기쁨과 영광교회</b>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리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후 6:30(토)	<b>낙원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45	<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자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일예배: 오후 9:00	<b>뉴욕목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뉴욕효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새벽 6:0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주일학교: 오전 8:00 (매주 주, 수)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자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 요 찬양예배: 오후 8:30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집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b>한미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기타지역 교회</b>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오후 11:00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벽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b>벤델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위행년부: 오후 1:30 청소년예배: (매주) 오전 11:00 유치, 유아부: 오전 10:00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b>엘파소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토)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www.jesusa.org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5:30(월-토)	<b>템피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2:10 청년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아가페선교침례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아빠의 선물 (2)

정정숙 박사  
(매릴리터치 원장)



## 죽음, 선물입니다!

그때가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때였는데 나의 항의 때문에 천국에 보내는 것이 미뤄졌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하나님이 잠시 보류하신 것으로 언제까지 보류하시는 건가? "그냥 두어도 곧 떠날 사람인데 왜 그럴 지 모르나?"는 나의 항의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로 나는 거의 2년 동안 극심한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쇠약해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천국에 간 두 형제를 부르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꾸었던 그 생생한 꿈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아직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죽어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2005년 새해가 왔습니다. 발병한 지 7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남편 데려가시면 절대로 안돼요. 그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치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쓰시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 그 삶은 솔직히 괜찮아요!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뜻도 펼쳐 볼 새 없이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지요. 남편을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나는 매일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어쩐지 기분이 미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뜻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방식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소원을 위해 간구한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요 최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기도만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죽음준비-죽음이 선물임을 받아들이기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죽음 연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2004년 8월 78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녀는 2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 1968년에 발표한 "죽음의 순간"(On Death And Dying)에서는 죽음을 5단계 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이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거치게 되는 정신적 감정적 증상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의 5단계 중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과 분노의 단계이며 세 번째는 절대자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침체의 단계이며 나머지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환자나 그의 가족은 예외 없이 이 단계로부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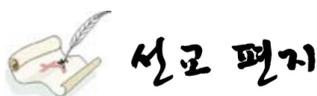
두 번째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망하고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속의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크나큰 고통에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과 분노가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 한층 목숨은 욥의 절망을 "믿음의 빛줄에 매달려 하는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욥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과 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 다. 대리만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욥처럼 절망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을 비롯한 성경 속 인물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서서 감사의 찬송만 불렀다면 그들과 비교되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했을 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우리는 자유롭게 절망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표현도 분노의 표현도 믿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이 어디이며 내가 누구지 알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무사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 선교 편지

## 브라질

상파울루 베데스다교회 단기선교팀의 브라질 동북부 선교사역

저희 부부는 우리 베데스다교회의 선교팀 17명과 함께 31일 밤 11시30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13년 1월 1일 밤 11시 비행기로 Guarulhos(과를료스) 공항을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 2시30분에 브라질 동북부 Pernambuco주 Recife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새벽 5시에 버스로 출발하여 7시간 후에 브라질 동북부 Pernambuco주 Tabira시에 있는 Tabira 브라질장로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3박4일 간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12시까지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고, 설교와 특별활동과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전도가 익숙지 못하고, 더구나 노방전도는 해본 일이 없는 이 브라질교회 청년들을 훈련시켜 우리 대원들과 짝을 지어 노방전도와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저녁 전도집회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전단광고지와 선물을 주면서 다음날 아침10시부터 어린이 성경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의 기후는 섭씨 영상40도를 넘는 더위인데도 전도대원들은 믿음과 인내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낮에 노방전도와 가정방문 전도를 통하여 초청된 불신자를 중심으로 전도집회를 열어 주님을 영접시키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1월 5일 오전에 Tabira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다음 선교사역자인 교회로 가기 위하여 집을 꾸러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40분 후에 Sao Jose do Egito(상 조제 두 에지토) 교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조간회 목사님이 담임이신 서울 예능교회의 이승일 집사님과 양영숙 권사님 외 몇명의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이며, 담임목사는 베데스다교회가 전담하여 운영하는 Sao Paulo주 Limeira시의 Limeira브라질 장로교신 학교 졸업생인 Neimar Batista da Silva목사입니다. 이곳에 집을 내려놓고 버스 두 시간을 달려서 Paraiba주 Patos시에 있는 Sertao(셀타오) 브라질 장로교신학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7시 30분부



Solidao 교회당



Tabira 33 성경학교

터 시작되는 본 신학교 제1회 졸업식에 우리 선교팀 17명 전원이 모두 참석하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Patos교회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졸업식은 성대하게 거행돼 4명이 졸업을 하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섭씨 42도 이상이나 상승되는 브라질의 내륙지대입니다. 일년 중에서 4, 5, 6월 3개월만 비가 내리는 사막지대이므로 물이 없어서 정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은 몹시 가난합니다. 비가 없는 지역이므로 요즘은 길을 지나다보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말라 죽은 소나 말과 당나귀의 사체를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1월 6일 오후부터 전도 훈련을 시킨 Sao Jose do Egito교회 교인들과 우리 선교팀이 짝을 지어 Tabira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노방전도와 가정방문을 통해 복음을 제시하며 전도를 하였고, 7일 아침부터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된다는 전단지과 선물을 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1월 9일까지 Tabira교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오후 점심 식사 후에는 노방전도와 저녁 7시 30분에는 전도집회를 가졌으며, 결신자를 초청하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 주택이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몰타자동차로 판매하는 물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금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선교팀이 구입하여 사용한 물은 4,400리터나 되었습니다.

1월 9일 저녁에는 이곳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을 달려서 Santa Terezinha(산타 테레지냐)시에 새로 건축된 Sitio Cutia(시타우 꾸피아) 브라질장로교회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농장속에 건축된 전원교회인데 4-6km를 걸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브라질의 교회는 주일예배가 밤 7시 30분에 드려지므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걸어서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고 있는 부락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농장을 중심으로 일꾼들이 드문드문 산재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진 헌당예배에는 브라질 교인 200여명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집회를 끝으로 모두 10일간의 금번 단기선교 사역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Sao Paulo 과를료스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부부는 모든 선교 여정을 무더위와 목욕 시설도 없는 환경에서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신 베데스다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항상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우선 목사, 신숙자 선교사 드림  
이메일: ssong1960@yahoo.com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28)

##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오늘은 먼저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부분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만이 미국 땅, 미국 사회에서 한국 이민자들의 자녀로서 혹은 스스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길 민족적 인종적으로 한국인인 우리 자녀들이 혼란과 위기를 넘어 든든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성장통이 동반되는 합검고 어려운 일이거나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의지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우주적 등등 모든 측면에서 “자아”에 대한 연속성, 동일성, 독자성, 불변성 등에 대한 자기 존재의식을 세우는 일인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연속성, 동일

부도님들은 자신들과 외적으로 동일하게 생겼지만 가치관이나 경험한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 어느 쪽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하고, 그 어느 쪽에도 구성원으로 속한 느낌을 갖지 못하고, 우리 한인 청소년들은 혼란과 혼돈 속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인 자녀들이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 혼란하게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의 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란—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행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 이국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가열차게 행하고 있는 “자아정체성 형성, 확립을 위한 씨름”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

인적 편차가 있겠지만—갖도록 가르치고 격려하여, 다른 부분들에서의 혼란과 혼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바로 한인교회의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근간을 배우는 전통 전수 교육을 통해 각자 자신의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성,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앞으로 전체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 확립하는데 있어 단단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이것이 좋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도적으로 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자면,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은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전통 전수 교육을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에는 우리 자녀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

### 그리스도제자로서 정체성과 더불어 민족적/인종적 정체성 심어줘야 전통교육 이유 설명하고 정보 제공해 삶에 통전할 수 있도록 격려

성, 독자성, 불변성 등을 경험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특별히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 부여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련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특별히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작하시다시피 그 처한 상황이란 바로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양 사회와 문화 그 중간에 끼여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일찍 연령에 이르러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사용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는 동일시 과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다른 청소년들이 흔히 그 동일시 대상으로 삼는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동일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 친구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외적으로 다르게 생겼고 또한 너무나 다른 성장배경과 가정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간을 들여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게 되며, 내 가정의 근간이 무엇인지 배우고, 내 민족이 어떤 문화를 향유해 왔는지 배우고, 내 선대들이 어떠한 풍습을 왜 지켜 왔는지를 알아가며, 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적 모습과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를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상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이 자아 정체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미국을 살아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아의 연속성과 통전성이 분열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경우,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의 혼란이 그 전체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족적/인종적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전체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확고하고 탄탄한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물론 그 정체성의 세세한 정도와 모습에는 개

이며, 이로 인해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맞닥뜨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더욱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혜롭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조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주입하고 한국적 전통과 문화를 강요하는 식의 교육은 가장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이 형성되지는 않겠고,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먼저 왜 전통에 대해 배우야 하는지, 그렇게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전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를 스스로 성찰적으로 자신의 삶에 통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이미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며, 이제는 합리적 설득이 없는 배움에 역량을 느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 매일가성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세상에 오신 예수(요1:1-18)

하늘영광 버리시고 이 땅위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21번 언급되었다. 빛의 역할은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밝히는 것이며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생명의 치유와 삶의 모범이 되신다는 선포다. 고통과 어둠의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탄은 어둠을 대변하고 예수님은 빛을 대변하신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그리

스도의 소식은 2천년역사 속에 항상 최고의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류역사 수천 년 만에 어둠의 세상에 비친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빛으로부터 세상에는 생명이 시작됐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지만 예수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의 완성”이다.

## 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1:19-28)

세례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매우 인상적인 두 가지 사실을 선언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다.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 조사단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선언했다. 세례요한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장수하지

도 못했고 부요하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잠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축몰을 입고 살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제자로 남기지 못했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맡기고 처형당했다. 세례요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광야의 나팔”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의 행복과 기쁨도 “광야의 나팔”이다. 광야에는 생명의 냄새가 없어도 요한은 외쳤고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다.

## 수 하나님의 어린양(요1:29-42)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라고 선언했다. “보라”라는 선언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력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빛을 보라는 것이다. 생명의 빛이신 어린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사셀의 어린양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여야 했다. 레16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속죄물을 정하고 그 날에 두 염소를 구별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태워 제

단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산 염소의 머리에 두 손 올리고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짐목조목 부르며 기도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짐목조목 부른 후 온 백성들은 자신이 범한 죄를 불러줄 때마다 누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맹수들이 눈물겨리 거친 광야에 풀어놓았고 그 밤에 온몸이 찢겨죽었다. 세례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이었다.

## 목 참 이스라엘 사람(요1:43-51)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하셨다. 아마도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뒤틀린 야곱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사온 아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라내리라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주님께 나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 금 하인들은 알더라(요2:1-12)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표적은 이적과는 다르다. 공판복음서의 이적들은 두나미스(능력)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이적은 표적, 세메이온(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계시가 구체화된 사건)이라고 한다.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다.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화”다.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유익한 존재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변화를 체험하려면 첫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 어머니는 포도주가 모자란 심각한 문제점을 예수님께 알렸다. 둘째,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 포도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명령,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 갔다 주라... 그대로 순종할 때 변화를 체험한다.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행복이다.

## 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요2:13-25)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다. 한달이상씩 걸어와야하는 예배자들이 건강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앞에서 좋은 짐승을 팔아야 했고,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세제 화폐는 당연히 성전에서 바꿔야 했다. 또 그들이 장사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을 제사제도 철폐를 선포하시는 구체적 사건이었다. 오늘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가 무용한 말씀일까? 일주일에 하루 성

전에서 예배드리면 나머지 6일은 빙고게임장소로 오픈해도 될까? 일주일의 하루 예배하면 6일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될까? 삼일초 드림엔 나머지 9/10는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될까? 우리의 물질 전부가 1년 365일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다. 교회는 봉사보다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해야 어울리는 집이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흥동 1670-1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64-490-70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531-231)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남가목예배부: 오전 7:40 주일남가목예배부: 오전 9:30 주일남가목예배부: 오전 11:30 주일남가목예배부: 오후 2:00 주일남가목예배부: 오후 7:30 http://gimpocho.org Tel: (02)31-984-2939, Fax: (0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면동 264번지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목요심리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평교광명시 북구 용문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1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b>로마인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로마교) VIA DEI QUINQUE, 92-38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양천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942-6567~9, Fax: (02)262-6568 서울시 양천구 상계동 622-3 (158-053)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2:00 주일5부: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9-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동부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b>수영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2)732-341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137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죽전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0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사택(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2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미중동 제2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강원도 양양시 성산구 불포동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8881, Fax: (02)942-8882 (136-83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인현광역시 부흥구 신곡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신길동 448-23	<b>청주주노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시 용인구 미중동 제2 146-7	<b>브라질 사순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r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R.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수요일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후 9:00(주일 제외)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얼 설교) Tel: (505)211-574-985 E-mail: han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제 28회

#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사



**김성길 목사**  
• 시온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전영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영 목사**  
• 천구들교회



**김에현 목사**  
• 뉴욕벨라델비아장로교회



**김준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주경 목사**  
• AMNOS에니스트리대표

**참석대상**

-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등록비**

-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 NY: (212)917-0022, CA: (562)403-2277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mailto: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mailto: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mailto: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mailto: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 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 Fax.(323)665-0056 / E-mail: LA@chpress.net

## 한미 연합

## 찬양예배

장소: 나성서부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  
1218 S. Fairfax Ave. LA.  
전화번호 (323)939-7323

일시: 2013년 2월 10일 (주일) 11:00 대예배

114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 먼저 (God First)” 를 교훈으로 하는 북미주 130여개의 기독교 종합대학교들 중에서 가장 큰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Azusa Pacific University) 에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교회에 찾아옵니다.

벨칸토 합창단 (Bel Canto Choir, 지휘: Dr. David Hughes) 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음악대학안에 있는 6개의 합창단중 여성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으로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를 순회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를 찬양으로 표현한다는 목적으로 “한미 연합 찬양예배” 를 나성서부교회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주최로 West LA 한인타운에서 개최합니다. 미국대학교 여성합창단이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은혜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